2025년 4월 24일 [3.27] 목요일

Información 한Gua 한과정보

한과정보

기준환율($1)	
₩1,430.90	Q7.695
한국송금시	살때
₩1,417.10	Q7.87

대사관 : 2382-4051~54 / embcor.gt@mofa.go.kr / 긴급:4013-5184 / 한인회:2445-6461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선거 신청 "오늘까지"

과테말라에 거주 중인 우리 동포의 수는 약 5,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그 중 상당수가 선거권을 가진 성인 인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 선거에 참여한 비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과테말라에서 투표에 참여한 동포 유권자는 고작 178명에 불과했다. 또한 4월 23일 기준으로, 이번에 치루어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국민 선거를 위한 신고를 마친 동포는 381명과 이전 선거에 참여해 영구명부에 등재된 유권자 83명에 불과하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헌재에 의해 탄핵이 결정되어 실시되는 보궐선거이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만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재외국민 선거 신청은 오늘 4월 24일(목)까지이며, 〈6페이지에서 계속〉

새로운 소식

나랑호 마트-냉동식품입고(45페이지참조)
PARQUE 14 아파트 임대(44페이지참조)

Óptica Exprés
① ZONA 10
② C.C.ESKALA ROOSEVELT
③ 6A.AV. LOS CAPITOL Z.1
④ C.C.SANTA CLARA, VILLA NUEVA
⑤ BOUL.PRINCIPAL SANCRISTOBAL
2258-9667, 2250-6419
Ópticaexprés

eclipse & mariposa
1F Restaurante
BAR
가족노래방
2F Karaoke
36 av 0-37 Zona 7 Col. Toledo
tel. 5633-1949

과테말라 한인교회 연합회

2025, 5/9~11

연합 말씀집회

주제

'성령님의 마음 알기'



김병삼 목사님
(분당 만나교회 담임)

5/8(목) 오전 10:30
장소 평강교회

'선교사님 &
목회자를 위한
모임'

▪ 5/9(금) 8pm (엡 4:22~24)
[최고이신 그 분과 동행하기]

▪ 5/10(토) 7pm
(막 9:14~29중 예수님의 말씀만)
[최고이신 그 분에게 집중하기]

▪ 5/11(주일) 3pm (요 14:15)
[최고의 복음에 반응하기]

집회장소 | 한인교회
(37 Ave 3-26 Zona 7. Col. El Rodeo)

과테말라 한인교회 연합회

• 높은뜻우리교회 • 사랑의교회 • 선한목자교회 • 제일교회 • 주님의교회 • 평강교회 • 하비스트교회 • 한인교회 •

Silk®
Korean Market

한정기간 세일!





-40%
아침햇살
1.5L

15 Avenida 6-01, zona 13
Centro Comercial Century Plaza

Local
206

BAUMDEX | 바움덱스

문의전화 : +502-4640-1227

안마의자 전상품
보상판매 & 렌탈서비스

수고했어, 오늘도.

고품격 안마의자
DEX | 덱스

BEST SELLER



모두를 위한 안마의자
LeBlanc | 레블랑

BEST SELLER



할인혜택
구매고객께는, 제품별 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보상판매
중고제품 반납하시면, 제품에 따라 할인해 드려요.

렌탈서비스
구매가 망설여지신다면, 해월 부담없는 가격으로 렌탈하여 사용해 보세요.

baumdex.com

baumdex.gt

(-4-)

고기전문식당 RESTAURANTE HAN GUK GWAN

한국관



냉면전문식당 그외 다양한 메뉴 / 넉넉한 주차공간 보유 (대리운전 콜 서비스)

연중무휴 / 이사삼구-오구이칠 / 2a. calle 33-14 Z.7 calzada mateo flores

매주 화요일 휴무

한·중식 전문

영동

한식



중식





고기



주소 : 11 calle 5-08 Zona 9
오영일팔-일일칠육/이사사일-오이육육

배달은 PedidosYa 를 이용해 주세요

이 기한을 넘길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과테말라에서의 투표 기간은 5월 20일부터 25일까지이다. 본국에서는 사전투표가 5월 29일과 30일, 본투표가 6월 3일에 진행된다.

재외국민 선거는 단순한 권리가 아닌 의무이자 책임이다. 거리, 시간, 무관심을 이유로 투표를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된다. 그 어떤 이유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될 수 없다.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에 참여한다면, 우리의 목소리는 전달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과정보 : 박성진

검찰, 2023년 시위 주도 혐의 루이스 파체코 현 차관 체포

에너지광산부 차관이자 토토니카판(Totonicapán) 지역의 전통 자치조직인 '48 Cantones'의 전 회장인 루이스 파체코(Luis Pacheco)가 2023년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시위와 도로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어 검찰(MP)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시위는 2023년 6월과 8월에 실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후보가 승리했으나, 검찰은 그의 소속 정당인 'Semilla'당에 대해 창당 발기인 서명 위조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며 촉발 되었다.

또 검찰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TSE)와 Semilla 당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투표 기록을 압수했으며 이는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로 인식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며 전국적인 시위로 이어졌었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PNC)은 시위가 발생한 지 1년도 한참 지난 4월 23일(수) 아침, 파체코 차관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대변인 모이세스 오르티스는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밝히면서도, 파체코 차관이, ▲불법 단체 결성(asociación ilícita), ▲선동죄(sedición), ▲테러 행위(terrorismo), ▲형사소송 방해(obstaculización a la acción penal), ▲ 사법방해(obstaculización a la justicia)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그의 노트



: conflor guatemala
Tel. 4069-5410 / 3042-6968
기억하고 싶은 모든 순간을 CONFLOR와 함께 하세요!!
감사와 축하의 자리에, 향기로운 정성을 가~득 담아 전해드려요.
한국 포장 재료와 자연미가 돋보이는 플라워 스타일
개업 및 결혼식을 빛내 줄 새로운 개념의 세련된 축하 화환 및 모든 경조 화환



신제품 입고
짜장면
칼국수
양반
우거지된장국
양반
차돌육개장
YOGURT POWDER
립파이
초코
LOTTE
몽쉘
생크림케이크
ORIGINAL
몽쉘, 더 완벽해지다
농심
벌집피자
옥수수깡
딸기 나나킥
포테토칩
포테토칩
빵부장
소금빵
빵부장
초코빵
Chocolate Bread
먹태깡
JELLYCIOUS
수박
JELLYCIOUS
청포도
JELLYCIOUS
조스
월-토 9:00AM-7:30PM
3076-2843
NEOMART
15 AVENIDA 7-79 ZONA 13



북, 컴퓨터, 휴대전화, USB 메모리 등도 증거물로 확보하였다.

이번 체포와 관련해 다비드 보테오(David Boteo) 경찰청장은 여러 장소에서 추가 수색이 이뤄지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수사 비공개 방침으로 인해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파체코 차관은 압수수색 직후 과테말라 수도에 있는 법원청사 'Torres de Tribunales'로 이송돼 구속 사유를 통보받고 첫 심문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파체코 차관이 원주민 지도자였던 2023년 10월, 전국에서 벌어진 도로 봉쇄 및 시위를 주도한 인물로 보고 있다.

당시 시위대는 검찰총장 콘수엘로 포라스(Consuelo Porras)의 사임을 요구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이라 주장했으며, 파체코는 당시 '48 Cantones'의 회장으로서 "이는 시작일 뿐"이라며 향후 더 많은 시위를 예고한 바 있다.

23일, 검찰에 체포된 이들 중에는 Luis Pacheco 차관 이외에도 당시 '48 Cantones'의 재무담당자 였던 Hector Chaclan도 포함되었으며, 현 Soloa 주지사 Edgar Benjamín Tuy Bixcul는 조사를 위한 면책특권 박탈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oy502

현직 차관 체포에 분개한 아레발로 대통령 "과도한 탄압 중단하라"

루이스 파체코 차관 체포 이후,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대통령은 검찰청장 꼰수엘로 뽀라스의 해임을 위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의회를 향해 촉구했다.

23일, 꼰수엘로 뽀라스 검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2023년 시위를 주도했던 Luis Pacheco 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체포과 이루어 진 후 아레발로 대통령은 SNS 'X'를 통해 "과도한 정치적 탄압은 과테말라 국민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검찰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임을 비판했다.

그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꼰수엘로 뽀라스와 그녀의 범죄 집단(검찰)은 과테말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의회가 검찰청장의 해임을 위한 법안을 다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영신 과테말라 신입 및 경력직 채용 공고

인재를 찾습니다.

영신과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재능과 열정이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경력 및 나이 무관)	• 포염 생산 관리: 0명 / 사염 생산 관리: 0명 • 영업 관리: 0명 • 창고 관리: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국문(사진포함) • 자기소개서: 경력자는 경력관련 위주 기술 •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후 2차 면접 진행
고용형태 및 근무조건	• 정규직 • 보험 및 기타 복리후생 지원
문의처 및 서류접수	• 이메일 접수: hyjung@youngst.com

첫 번째는 대통령 자신이 2024년 5월 초 의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현행 '검찰법' 제14조를 개정해 검찰총장이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도 해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는 2023년 12월에 사무엘 페레스(Samuel Pérez)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것으로, 검찰청장의 직위를 보호하고 있는 현행 14조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페레스 의원은 "현행 검찰조직법 14조는 검찰청장을 범죄 유죄 판결이 없이는 해임할 수 없게 하고 있다"며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두 가지 개정안은 의회 내 다수 정당의 지지를 얻지 못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의회에는 최소 5건의 유사한 검찰청장 해임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모두 중단된 상태다.

헌법재판소(CC)에 제출된 헌법소원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2025년 1월 말 해당 법원이 "검찰총장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해임될 수 없다"고 결정하면서 뵤라스 검찰청장은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Soy502

프란스시코 교황 장례식에 아레발로 대통령 불참 문체부 장관 대리 참석

과테말라 정부는 4월 23일(수),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Liwy Grazioso 문화체육부 장관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은 오는 4월 26일(토),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참석이 확정된 주요 인사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있으며 왕실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으로, 영국의 웨일스 공 윌리엄 왕자와 스페인의 펠리페 6세 국왕 및 레티시아 왕비도 장례식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에서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을 대신해 로사 이셀라 로드리게스 내무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며,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Soy502

샬롬여행사
(SHALOM TOUR)
CALZADA ROOSEVELT 33-86 Zona 7
EDIFICIO ilumina # 802 호
2439-7650, 2439-7706, 5990-7197
shalomlim@hotmail.com, shalomlimgua@hanmail.net

주소 이전 : CALZADA ROOSEVELT 33-86 Z.7 EDIFICIO ilumina # 802 호

최근 항공권 요금 인상으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예약을 미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항공사 운항 시간 조정으로 티켓을 미리 발권하신 분들은 탑승전 꼭 운항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 출발 항공권도 발권합니다)

YAKJIN GUATEMALA, S.A.

(주)약진통상 과테말라

생산기획 / 원단생산 경력직 채용

1. 모집 부문 내용

구 분	모집부문	인 원	직 급	공통사항
경력	생산기획	0 명	사원 ~ 과장	영어/스페인어 활용 가능자 우대
	원단생산	0 명	사원 ~ 과장	

2. 제 출 서 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3. 전 형 방 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 (서류 심사 후 개별통지)

4. 접수 및 문의사항

- Cel : 5619 - 6484
- E-mail : ceci.yun@yakjin.com

5. 기 타

-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이 프



가래 없이도 폐렴? 고령층 폐렴 '이렇게' 다르다

오랜 기간 폐렴을 앓았던 프란시스코 교황이 88세 일기로 선종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에겐 폐렴이 매우 위험한 질환이다. 폐렴에 걸려 입원한 다섯 명 중 한 명은 사망할 정도다. 의심해야 하는 증상과 치료 방법 등 고령층 폐렴에 대한 모든 것을 고려대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심재겸 교수에게 들었다.

-폐렴의 사망률과 치명율은?

"폐렴은 고령층에서는 사망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질병이다. 폐렴으로 입원을 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률은 20%이고, 중환자실로 입원해야 하는 중증 폐렴 사망률은 35~50%에 이르므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기저질환이 있다면 위험도는 더 높아진다."

-폐렴의 발병 원인은?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폐에 염증이 생기고, 폐포 내 미생물 균주가 증식해 환자가 균주에 대한 면역반응을 일으키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폐와 전신에 염증반응이 나타나 가래,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발현된다. 폐렴균 중 가장 흔한 세균인 폐렴구균은 무증상 보균자로부터 퍼진다. 입안과 인후두 안 분비물이 잠을 잘 때 등 무의식적으로 기도로 미세흡인이 되면서 균이 분비물과 함께 기도로 들어가는 게 가장 흔한 감염 루트다. 우리 몸의 여러 단계 방어작용에도 불구하고 균이 폐 안쪽까지 들어와 균이 증식이 되면, 염증 반응이 시작되고 그 부산물로 증상이 유발 된다."

-언제 폐렴을 의심해야 하는가?

"폐렴의 주된 증상은 발열·기침·객담 등이며 오한·흉부통증·호흡곤란이 동반되기도 한다. 그러나 호흡기질환의 5대 증상인 기침·객담·객혈·호흡곤란·흉통 등이 모두 나타날 수 있어 증상만으로는 폐렴과 다른 질환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폐렴환자는 호흡기증상 외에도 두통·오심·구토·복통·설사·근육·관절통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객담은 흔히 누런색이나 녹색을 띄지만 암적색 또는 객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비정형폐렴은 객담의 배출이 별로 없는 편이다. 고령층은 발열·기침·객담과 같은 전형적인 증상 없이 식욕부진이나 기운이 없고 의식이 처지는 등의 비특이적인 반응으로 내원하게 된다. 고령층 폐렴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연세인데 평소와 다르게 식욕이 없거나 기력이 없으면 늦지 않게 혹시 폐렴이 있지는 않은지 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폐렴 합병증은?

"폐는 숨을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염증이 심하면 자기 힘으로 숨을 쉴 수가 없다. 항생제 치료 후 회복이 될 때까지 기도에 기관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숨을 쉬어야 한다. 폐렴으로 인해 전신의 염증 반응이 조절되지 않고 장기 부전이 발생하는 패혈증이 동반되면 사망에 이를

치아교정 & 임플란트

교정 및 임플란트, 보철 전문의

교정과
- 엑스레이 및 CBCT 진단 & 치료계획 한국어 상담
- 메탈릭 & 세라믹 브라켓 교정
- 소아진단 및 예비치료

보철과
- 임플란트 계획 및 식립 치료
- 지르코니아 & 세라믹 보철 전문
- 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틀니 등 다양한 종류의 전문보철 치료

ZIRCONIA
CENTRO DENTAL

DR. HONG IL KIM / 김홍일 치아교정전문의
Tel. 502 3002 2701 / PBX 2293 6961 / Zona 10, Edificio Torino 1, Clinica 106

수 있다."

-폐렴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폐렴은 흉부방사선상 새로운 폐침윤이 있으면서 발열·화농성 객담·백혈구 증가 등의 염증성 반응을 보일 때 진단할 수 있다. 주로 폐렴에 합당한 임상적 증상과 함께 흉부 엑스레이나 CT,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객담 검사 등을 토대로 진단하게 된다. 폐렴은 원인에 따라 항생제 복용으로 치료한다. 객담 검사를 할 때 원인균이 검출이 되는 경우는 30%에 불과하고 균 검사에 3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균을 확인 후 치료하기 보다는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된다. 국내 폐렴 원인균 중에서 40-50% 정도로 가장 흔한 것이 폐렴구균이다. 따라서 경험적으로 폐렴 치료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폐렴구균에 대한 항균력이 있는 항생제를 선택한다. 항생제는 임상적으로 안정이 보이면 5~7일 정도 사용 후 중단할 수 있다. 증상이 남아 있거나 더 좋아질 목적으로 항생제를 오래 복용한다고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폐에 농이 차거나 괴사하거나 결핵으로 폐가 망가졌거나 기관지확장증과 같은 구조적 폐질환이 있는 환자는 원인균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좀 더 항생제를 오래 사용하여야 될 수 있다."

-폐렴 예방법은?

"폐렴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방접종이다. 폐렴이 걸렸을 때 중증으로 진행하고 위험할 수 있는 65세 이상이나 65세가 넘지 않더라도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를 중심으로 접종하는 것을 권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폐렴구균 백신은 4종류이다. 23가 다당질 백신으로 65세 이상 국민들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가능한 백신과 한번 맞으면 오래 면역이 지속되는 단백결합백신 3종류이다(13가 단백결합 백신, 15가 단백결합 백신, 20가 단백결합 백신). 그 동안 13가 단백결합 백신과 23가 다당질 백신의 순차접종을 권고하였으나 최근 15가 단백결합 백신과 20가 단백결합 백신의 국내 출시·승인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백신접종 권고안도 개정됐다. 본인의 접종 이력과 질병 상태에 따라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백신 종류와 스케줄을 결정하면 된다. 폐렴을 일으키는 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백신은 폐렴구균만 예방하고 그중에서도 30~50%의 유형을 예방하므로 전체적으로 백신으로 인한 모든 폐렴 예방률은 대략 20%정도이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하면 폐렴구균에 의한 침습성 감염을 80% 이상 예방하고 중증도와 사망률을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위험군에서는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외에 폐렴을 비롯한 호흡기감염증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방법은 손씻기이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손을 잘 씻는 것만으로도 감기는 물론 폐렴까지 예방이 되므로 철저히 생활화하면 개인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다."

배달 (2인분 이상 무료)

맛 집



안창살
삼겹살
항정살
LA갈비
돼지양념목살
훈제오리 NEW

2시간 전 예약메뉴
보 쌈
등갈비 김치찜
닭백숙
닭도리탕

사시미
춘천맛집닭갈비
복찜
복지리
불향 쭈삼 NEW
불향 쭈꾸미
숯불닭갈비
물회
회덮밥
회무침
골뱅이무침
생선탕
냉채족발,족발
해물탕,찜

설렁탕
감자탕
돼지국밥
도가니탕
꼬리곰탕
우거지갈비탕
삼계탕
(흑마늘,들깨)
제육덮밥
불고기덮밥
돈까스
청국장
생선튀김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단체회식 예약 받습니다
넓은홀과 넓은 주차장 보유
일요일 쉽니다

2441-7783, 5458-8362, 5477-4922 / 1calle 35-66 Z.7 Colonia Toledo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당장 응급실 가야 하는 상황일 수도"

봄철 야외 활동과 단체 생활이 늘면서 감염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는 감염에 더 취약해 주의가 필요하다. 비슷한 증상이라도 간단한 처치로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하는 심각한 질환의 전조증상일 수도 있다. 봄철 유행하는 소아 감염질환은 발생 빈도순으로 감기, 장염, 수족구병, 뇌수막염 등이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한상수 교수는 "감기, 장염은 소아에서 가장 흔한 감염병이며, 수족구병은 봄·여름 유행한다"라며 "뇌수막염은 발생 빈도는 낮지만, 응급상황이 될 수 있어 관련 증상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감기, 가볍다고 무시하다 중이염 유발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RSV 등 바이러스가 원인인 급성 상기도 감염이다. 5세 이하 영유아는 면역체계가 미숙해 감기에 자주 걸리고, 6개월 미만 영아에서는 감기가 모세기관지염으로 진행돼 숨쉬기 어렵거나 쌕쌕거림이 나타날 수 있다. 2~5세 아이는 중이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40도 이상 고열, 호흡곤란이나 심한 쌕쌕거림, 경련, 탈수 증상이나 의식이 처지는 경우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

감기를 예방하려면 개인위생 관리와 면역력 증진을 위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사람이 많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습관화하며, 기침이나 재채기 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좋다.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체온 유지와 실내 환기, 독감 등 예방접종이 필수다.

◇구토와 설사로 탈수 위험 높은 장염

장염도 봄철 영유아에서 흔히 나타난다. 새학기 단체 생활로 겨울철 유행하던 장염 바이러스의 전염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주요 원인은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 다양하다. 생후 6~24개월 영아에서 주로 로타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급성 장염이 많이 발생한다.

소아 급성 장염의 주요 증상은 설사와 구토, 복통이다. 대부분 특별한 약 없이도 수분 보충과 식이 조절만으로 회복된다. 한상수 교수는 "가정에서는 미지근한 보리차나 전해질 음료를 티스푼으로 조금씩 자주 마시게 하는 것이 좋다"라며 "구토가 가라앉으면 쌀미음, 죽, 바나나 등 속이 편한 음식부터 먹이고, 유제품은 설사를 악화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부분 3~7일 내 호전되며, 대변 횟수와 구토가 줄고 식사도 다시 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심한 탈수로 입안이 마르고 눈물이 안 나오며 축 늘어지고 소변이 줄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피가 섞인 설사를 하거나 복통이 심할 때, 39도 이상의 고열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즉시 의료 평가가 필요하다.

◇단체 생활 시 주의가 필요한 수족구병

수족구병은 손, 발, 입안에 물집이 생기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주로 5세 이하 아이에게 발생한다. 대부분 1주일 이내 호전되지만, 드물게 뇌수막염이나 뇌염 등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생후 6개월~만 3세가 가장 잘 걸리고 증상도 심하다. 주요 원인은 엔테로바이러스 중 '콕사키바이러스 A16형'과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이다.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은 신경계 합병증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증상은 미열과 입안 통증이다. 손, 발바닥, 엉덩이, 무릎, 팔꿈치 등에 작은 붉은 반점이 생긴 후 물집으로 발전하는 특징이 있다. 드물게 증상이 심해지면 고열과 반복 구토, 두통, 목 경직, 팔다리에 힘이 없고 비틀거리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신경계 합병증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

한 교수는 "수족구병은 7~10일이 지나면 저절로 호전된다"라며 "가정에서는 아이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자극 없는 음식과 수분 공급으로 탈수를 막아야 하는데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이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며 체온을 조절한다"고 말했다.

◇응급 대응이 필수인 뇌수막염

뇌수막염은 뇌를 둘러싼 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봄철 유행 감염질환 중 가장 위험하다. 원인에 따라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으로 나뉜다. 소아에서는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 대부분이나, 드물게 세균성일 경우 치명률이 높다. 영유아기에는 폐렴구균, 헤모필루스균 등이, 신생아기에는 산모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연쇄구균 등이 주요 원인이다. 학령기, 청소년기에는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에 유의해야 한다. 바이러스성은 주로 장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대표 증상은 고열, 심한 두통, 구토, 목 경직 등이며, 의식저하나 경련, 축 늘어짐, 피부에 출혈성 발진이 동반되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한다. 뇌수막염은 대부분 바이러스성으로 경과가 양호하지만, 정확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세균성 뇌수막염은 예방접종이 가능하므로 '뇌수막염균 인플루엔자 B형' 및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 한상수 교수는 "대부분의 봄철 소아 감염질환은 적절한 예방과 초기 대응으로 심각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라며 "특히 영유아는 증상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중요하다"고 했다.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예배공동체 성령공동체 선교공동체 사랑공동체를
이루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장로, 권사,안수집사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로] 권영철 김재기 김점수

[권　　사] 김말숙 최인숙

[안수집사] 김동철 임정길

* 일시 : 2025년 5월 4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 선한목자교회 (18 CALLE 5-92 Z.11)

선한목자교회
IGLESIA DEL BUEN PASTOR

정 치 · 경 제

'아수라장' 한덕수 시정연설 野 "내란대행" 항의, 국힘 '기립박수'

野 "당신이 올 자리 아냐" 시작 전부터 항의…
우 의장, 한 대행 비판에 국힘 반발…
한덕수 출마 질문에 "고생하셨다"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야당 의원들이 항의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국회에 도착하자 마자 '일방적 통상 협상 중단, 민생추경 확대'를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여기는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니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후 국회를 찾은 건 이날이 처음이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 굳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1979년 최규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이다.

본회의장에서도 한 권한대행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소란이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에는 경남 창녕군 면갑초등학생들이 방청차 참석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소개가 끝나자 마자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재개됐다. 야당 의원들은 '매국 협상 중단'이라고 적힌 팻말도 들었다.

애초 민주당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에 침묵으로 대응할 것을 소속 의원에게 권고했지만 한 권한대행이 연단에 오르자 마자 고성이 나왔다. "내란대행 사퇴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에 반발하면서 장내 소란이 지속됐다.

한 권한대행의 시정연설 도중에도 여야 신경전이 지속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가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 남아 한 권한대행 시정연설 중간 중간 항의를 이어갔다. 한 권한대행이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소통해 협력했던 노력이 있었다"고 언급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를 무시하는 거냐"고 소리쳤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맞받으며 박수로 한 권한대행을 응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정연설이 끝나자 기립 박수를 치기도 했다.

여야 대치가 끝나는 듯 했지만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본회의가 파행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에게 "대정부 질문의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됐듯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고 면전에서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힘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최은숙·박수민 의원은 의장석으로 나와 항의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수로 우 의장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의장을 나오며 대선 출마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




치킨 - 특허 난 "수유식 튀김기"로 발암물질이 생성되지 않고 냉동하지 않은 "깨끗한 재료"만 사용합니다.

냉동홍시감 - 피로회복에 좋은 홍시감
선물용 포장 12EA / Q150

주문 : 4739-6294

과테 게스트 하우스
하숙,민박
ZONA 7 위치
4739-6294
32Ave. 1-76 Col.Utatlan Z.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El Consejo Asesor de la Unificación Pacífica de Corea en América Central y el Caribe
kday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
Embajada de la República de Corea
INVITADO ESPECIAL
스페셜 게스트
NIHOO 니후 와
함께하는
평화통일기원
KDAY 2025
HYPER WAVE
2025년 5월 4일 (일) 9AM-7PM
과테말라 산업공원 (Zona9)
Parque de la Industria Salón 8 y área 8,9
한국문화체험 - Kpop Festival - 한식
Kpop - Cultura - Comida

이복현 "김건희 부정거래 확인 못해 이제 검찰의 시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검찰 고발에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빠진 것과 관련, 24일 "고발할 만한 내용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을 갖고 지난 23일 삼부토건 전 현직 대표와 실사주 등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통상의 조사 사건보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혐의자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취득부터 주식 전환, 매도 과정 등 연관된 모든 자금 흐름이 어디로 이어지는 지를 철저히 살폈다"며 "이득을 많이 본 계좌, 주식을 많이 매수·매도한 계좌 등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모든 계좌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권한 범위 내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살펴보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특정 인물들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며 "고발할 만한 내용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혹이 제기된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자금 추적 자료, 피고발인 관련 웰바이오텍 등 의혹이 제기된 사안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검찰로 인계, 고도의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검찰이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제 검찰의 시간인 듯 하다"며 "당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의혹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인력 분석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할 계획이고, 나아가 금융당국 차원의 추가 조사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의혹 관련자 서면조사나 의견진술 등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는 수행했다"면서도 "다만 지금 단계에서 어느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 지에 대해 말하는 것을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코로나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

선거영향 없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부목사와 교인 등 10명의 형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김 전 장관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4차례 대면 예배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3차례 이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하다고 보고 지난해 9월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고, 그에 대해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당시 서울시의 대면 예배 금지 명령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하며 이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벌금형을 확정받아도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에 제한받지만, 벌금형은 영향이 없다.

한국, 서해 중국 구조물에 "깊은 우려" 중국 "영유권 무관"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대형 구조물들을 둘러싸고 '서해 내해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열린 한·중 정부의 '해양협력대

화'에서 한국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중국은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다. 양국은 서해구조물과 불법조업 등의 문제를 실무적으로 다룰 '해양질서 분과위'를 설치했다.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서해상의 중국측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24일 외교부가 밝혔다.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국이 우리측 우려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을 가지고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서해상 한·중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해 연어 양식 등을 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이를 관리하는 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특히 지난 2월 한국 정부가 중국측 구조물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국내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현재는 중국이 이를 어업 시설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시설들을 계속 늘리면서 서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서해 내해화'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국내에서 커지고 있다.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관리시설이 양국 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고정된 구조물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23일 열린 한·중 협력대화에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 및 중측 외교부 홍량 변계해양사무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한국에서는 외교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당국자들이 참석했고, 중국에서는 외교부, 자연자원부, 국방부, 교통운수부, 해경국 등의 당국자들이 나왔다.

이번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는 서해 구조물 외에도 양국간 다양한 해양 관련 현안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양국 외교부 수석대표 간에 큰 틀에서 협의를 진행한 뒤 분과위를 설치해 상세한 협의를 진행했다. 서해 구조물, 불법조업과 관련한 양국 간 현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가 설치됐고, 공동 치어방류,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도 따로 설치됐다. 회의는 양국 외교부 간 수석대표회의→해양질서 분과위→실질협력 분과위→전체회의(양측 수석대표 주재) 순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공동 치어 방류, 수색·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해양 분야 실질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측이 부산에서 오는 28~30일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와 30일부터 5월1일까지 아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해양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데 대해 중국측은 성공적 회의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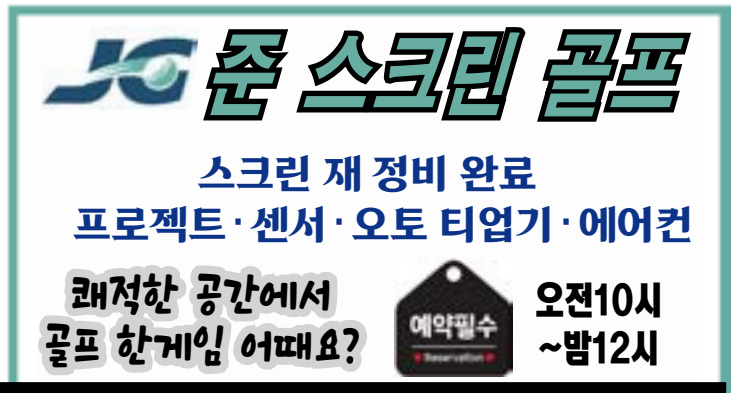
양국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고,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서해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와 실질협력 확대·심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 합의로 신설된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한중간 해양문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로 2021년 4월 첫 회의와 이듬해 6월 2차 회의 모두 화상으로 개최되었고, 이번이 첫 대면회의다.

韓美, 오늘 밤 2+2 관세 협의
한덕수 "신속하게 협상해야"
협상단 "서두르지 않을 것"

우리 정부가 24일 오전 8시(이하 현지시간, 한국시간 24일 오후 9시)부터 워싱턴DC에 소재한 미 재무부 청사에서 2+2 관세 협상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상호관세 철폐와 자동차 관세 협의를 우선순위에 둔다는 방침이다.





2a.Calle 32-77 Z.7 Ofibodega 1 Bodegas San Mateo / 연중무휴 / 4218-7400, 2233-7435

이번 협상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협상 실무자 사이에서는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한덕수 대행은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으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졸속 협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미국 측의 관심 사항을 확인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협상팀 60명 美 도착...방위비 분담금 실무진은 제외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이 가시화된 후 처음으로 한미 재무·통상 수장이 대화에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오전 8시 미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진행한다.

우리 정부는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에도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의 약 60명이 실무 지원단으로 출장길에 동참했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농업,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비관세장벽 완화를 요구할 것에 대비한 조치다.

안덕근 장관은 23일 미국 현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폐지와 자동차 관세 협의를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기본적으로 상호관세는 유예받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산업 협력 플랜을 협의해 향후 양국의 원만한 경제산업 관계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 관세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단에 국방·외교부 실무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관련 내용은 의제에 올리지 않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안 장관은 출국 전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이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관세 협상 '속도전' 의지…실무진 "양측 입장 확인 차원"
조태열 "대미협상 서두르지 않을 것…방위비 재협상 생각없어"

이번 협상을 놓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협상 실무진 사이에서는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한 대행은 '조기 마무리'를 원하는 모습이다. 그는 24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여 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 부총리는 22일 미국 입국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은 미국 측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며 "그러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니 그렇게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즉, 이번 만남을 일종의 '탐색전'으로 삼는 모습이다.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라는 표현을 택한 것도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주고받거나 결정하기보다는 상호 간 의견을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즉 미국 측이 주한미군 분담금 조정, 알래스카 액화천연

HANA TOUR
❖ 저렴한 멕시코 항공으로 한국 방문하세요.
❖ 세계 전 지역 패키지 여행 / 크루즈 여행
(코스타리카 / 페루 / 유럽 / 칸쿤 및 기타 전 지역)
❖ 언제, 어느 곳이든, 항상 24시간 고객과 동행하는 서비스
이희경(Edita Lee) 3042-6968 / 카톡아이디 editaguate
email : hanatourguate@gmail.com
5A. 16-35 #703 Plaza Pacifico Sur, Zona 14
가장 저렴하고 질 좋은 여행~~

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포괄한 '원스톱 쇼핑' 식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통상과 안보 문제를 분리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에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이 관심을 가져온 조선 산업, 방위비, 비관세 장벽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딜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저(미국)쪽에서 요청이 있으니 얘기를 들어보고 예비적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목적"이라며 "협상이 서로에게 '윈-윈'할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조기 마무리도 가능하겠지만 서둘러서 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대통령 선거까지 40여일 남았고 미국의 관세 유예기간까지 70여일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협상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남은 기간 최대한의 국익을 반영하기 위한 협상의 덩어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재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면합의 전력 한덕수, 출마장사 졸속협상 말라"

이처럼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는 6월 3일 대선이 진행되고,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한덕수 대행 체제에서의 협상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23일에도 한 대행을 향해 "자기 출마 장사를 위해 졸속협상과 타결을 압박해 협상팀을 흔들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 협상차 미국에 도착한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타결을 새 정부가 해야 하고 대행체제는 예비협상에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며 "한 대행의 졸속타결 방침에 대한 협상단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한덕수 내란내각에 국운이 달린 한미 통상협상을 맡길 수 없다"면서 "한 대행의 졸속협상 강행 의도는 미국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자 '대선 스펙 쌓기 졸속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한 대행을 향해 "(2000년) 통상교섭본부장 재직 당시 중국과의 마늘 협상을 주도했다가 중국산 마늘 수입을 완전 자유화했던 사실을 은폐한 게 드러났다"며 "퍼주기 아이콘"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졸속 타결되면 새 정부 집권 이후에도 뒤집기 힘든 대형 국익 훼손 참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명한 집
매주 화요일 쉽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MENU
돼지갈비
떡국
닭똥집 볶음
오리훈제구이
생삼겹살
돼지국밥
부대찌개
오리주물럭
오리탕전골
회덮밥
도가니 수육
소모듬 수육
수육전골
돈까스
매운 꼬리찜
뼈없는 닭갈비
감자탕 전골
콩나물해장국
2시간전 예약
등갈비 김치찜
한방 굴보쌈
한방 토종닭
한방오리수육
MENU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콩국수
잡채밥
육계장
뚝배기불고기
된장찌개
오징어볶음
제육볶음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우거지 갈비탕
도가니탕
꼬리곰탕
떡만두국
들깨 삼계탕
삼계탕
오리탕 뚝배기
감자탕 뚝배기
설렁탕
월남국수
메밀소바
국물떡볶이
신메뉴

복 찜

복 튀 김

사 시 미 개시

1calle 35-09 Z.7 Col. Toledo / 3008-1800, 2433-9788(배달합니다)

사 회

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 2탄 노인학대 충격 실태

저널리스트와 서울의소리 공동취재
"24시간 침대에 묶고 병원도 외면…노인 돌봄은 없었다"
"김건희 친오빠·최은순 친척 다수 근무…출근조차 안 해"

서울의 소리와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의 공동 보도가 연일 충격을 전하고 있다. 지난 방송 보도에 이어 두 번째 보도에서는 온요양원에서 벌어진 노인 학대와 인권 침해,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가 낱낱이 공개됐다.

15년 경력의 요양보호사는 해당 요양원에서 노인들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신체 구속이 일상처럼 이루어졌다고 증언했다. "죽고 싶다"고 말하는 노인에게 "말만 하지 말고 죽으라"고 하거나, 밥을 가리자 "주는 대로 처먹으라"며 폭언을 퍼붓는 장면도 드러났다.

신체를 구속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자 동의와 기록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침대에 노인을 24시간 묶어두고도 해당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외부에서 상황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들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소독되지 않은 기구, 비위생적인 식기 사용, 그리고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잦은 설사 등 기본적인 위생조차 관리되지 않은 환경이 고발됐다. 커피포트를 통한 소독 요청도 요양원 측은 무시했다.

주간에만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3명 외에는 야간·심야 시간에 노인을 돌볼 간호 인력이 전무한 상황. 긴급 상황 시 대응이 어렵고, 결국 모든 부담은 요양보호사에게 전가된다.

요양보호사들의 수당을 동결하거나 감봉하는 징계 내용을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비인간적 조치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저임금 기준 미달 우려 때문에 수당은 일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원 허가 조건인 물리치료실은 있으나, 실질적인 치료는 전무하다. 치료사의 역할은 찜질팩을 갖다주는 게 전부였으며, 고령자 대상 전문 치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대표 김진우 씨와 원장 등 주요 간부들이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 기록을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수의 직원이 김건희 여사 및 최은순 씨의 친인척 또는 지인이라는 점도 논란의 불씨다.

서울 시내의 다른 요양원은 동일한 식사비와 더 낮은 간식비로도 대기업 위탁을 통한 고품질 식사와 철저한 의료 케어를 제공하고 있었다. 야간 근무 간호사 배치, 안면 인식 출퇴근 기록 시스템, 정기 해외 연수 등 모범적 운영으로 온요양원의 문제점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노인 학대 제보가 관계 기관에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문제 없음'으로 종결된 사실도 드러났다. 영상 촬영을 통한 조롱조차 '보호자 설명용'이라는 요양원 측 해명만으로 마무리되었다.

면회가 있을 경우 생활실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연극처럼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제보도 있었다.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폐쇄적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되었다.

장인수 기자와 서울의 소리는 이번 보도 이후 후속 취재를 예고했다.

현재 온요양원의 전직 직원들은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 상태이며, 수사 및 감독 당국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건희 선물' 다이아 목걸이 행방불명 건진법사 "잃어버렸다"

2022년 김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 목걸이와는 다른 제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여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받은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행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이아 목걸이는 김건희 여사의 선물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씨는 수사기관에 이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20일 전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직 통일교 간부인 윤모씨가 준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행방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씬은 통일교 간부 윤씨로부터 고가의 목걸이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목걸이는 "잃어버렸다"고 답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목걸이가 6000만원대이며, 통일교 간부 윤씨가 '김 여사 선물'이라며 전씨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일교 간부 윤씨는 지난 2022년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실제로 독대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22년 5월 통일교 창립기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뵈었


2025
해외 청소년
통일골든벨
예선대회
2025. 5.17(토)
중미카리브지역 협의회
대회일시
2025. 05. 17. 토요일 18:00 - 20:00
(멕시코 시티 기준)
장소
화상회의 (ZOOM) 접속
참가대상
중미카리브 지역 거주 중, 고등학생 및 현지 외국인 청소년 (초등학생, 대학생 제외)
* 성적에 따라 모국방문 한류-통일역사체험 참가자격 부여 (단 최근 3년내 통일골든벨 입상을 통한 한국 초청행사 참석 경험 있는 학생 제외)
대회 참가 신청
• 접수방법 goldenbellmex@gmail.com
※ 구글클래스룸 클래스코드 요청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예상 문제는 구글클래스룸 가입 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2025년 4월 8일 - 5월 15일
• 접수문의 goldenbellmex@gmail.com
시상내역
• 최우수상 USD 500 (1명, 중미카리브협의회회장상)
• 우 수 상 USD 200 (1명, 중미카리브협의회회장상)
• 장 려 상 USD 100 (7명, 중미카리브협의회회장상)
• 참 가 상 USD 20 (참가 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다. 1시간 독대를 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2022년은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첫 해외순방을 간 해이기도 하다. 그해 6월 나토 정상회의를 위해 해외순방을 떠났던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스페인 재외동포 만찬회에 참석했고, 김 여사는 고가의 명품 목걸이를 착용하고 나타나 화제가 됐다.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는 '반 클리프 앤 아펠' 브랜드의 6000만원대 초고가 목걸이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목걸이를 두고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당시 야당에서도 이 목걸이에 대한 재산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목걸이는 김 여사가 당시 착용한 목걸이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간부 윤씨는 해외 순방 당시 목걸이 논란이 된 이후 전씨에 목걸이를 건네며 "김 여사에 선물하니 빌리지 마시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추정되는 5만원권 현금 1억 6500만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중 5000만원어치 신권에는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 있었고, 해당 비닐에는 기기번호와 일련번호, 담당자, 책임자의 이름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이란 날짜가 찍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이다"며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는 지폐 검수에 쓰이는 것으로 일련번호만으로 현금이 어디로 나간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기업 임원과 정치권 관계자, 법조인, 경찰 간부 등의 명함 수백장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씨가 전 정부에서 유력 인사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인사에 개입하는 '정치 브로커' 역할을 수행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尹 정치검찰 최후의 발악
文 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윤석열 정부 내내 전 정부 및 야당 탄압의 주구(走狗) 노릇을 했던 정치 검찰이 최후의 발악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목적의 기소와 편파 수사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와 사위 서 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는데 이로 인해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 바트),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178만 바트)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여러 차례 다혜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민주당은 박경미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사위에게 지급된 월급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니, 자그마치 4년을 질질 끌며 쥐어짠 논리가 고작 이것이냐?"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울고 갈 억지 논리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석열을 합법적으로 탈옥시켜주고서 되지도 않을 억지 논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황당무계하다. 조국 전 대표의 딸과 심우정 총장의 딸에 대한 판이한 기준만큼이나 어처구니없다. 대체 검찰이 말하는 법의 잣대는 검찰 마음대로인가?"라며 검찰의 편파 수사 행태를 꼬집었다.

끝으로 박 대변인은 "국민께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무딘 수사를 질타하니 적반하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며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 또한 같은 날 온브리핑에서 "충격적이다 못해 어이가 없다"고 질타하며 "검찰의 논리를 보면 사위 부부 생활비를 장인이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들은 모두 성인인 자식들 생활비를 다 대주는가? 그 자제들이 입사해서 월급을 받으면 모두 검사에 대한 뇌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런 검찰의 행태는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적으로 삼아 죽이려는 시도"라며 "검찰은 해체만이 답이라고 스스로 인증한 셈이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이제 법의 심판은 검찰에게 내려질 것"이고 "온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해체를 하는 것만이 답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의 문을 닫은 검사"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현 공판 4번 연속 비공개 '깜깜이 내란 재판' 더 많아질듯

[김-노상원 5차 공판] 정보사 증인 때문이라지만... 검찰, 합참·방첩사·707 소속 군인도 비공개 요청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와 함께 12.3 내란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이 24일 오전 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네 번 연속 비공개다.

재판부는 네 차례 기일 모두 군사기밀을 다루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증인이 출석해 비공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정보사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707특임단 소속 군인이 증인으로 출석할 때도 비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혀, 향후 '깜깜이 재판'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5차 공판에서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염려가 있어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방청석 인원을 퇴장시켰다. 이날은 김봉규 정보사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 김 전 본부장 등과 함께 비상계엄 전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내란을 계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재판부는 앞서 정성욱 정보사 대령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달 27일과 10일, 18일에도 재판을 비공개 한 바 있다. 정보사는 군의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안보상 이유로 정보사 소속이 증인으로 나온 재판을 비공개 한 것이나, 내란 사건이라는 중대성에 비춰 비공개 재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법원을 향해 "내란 핵심 피의자 김용현, 노상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주



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라며 "이런 특혜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비공개 기일은 정보사를 넘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쪽을 향해 "정보사 군인들에 대해 비공개 재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또 어느 곳이 비공개 재판이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검찰 측은 이에 "정보사가 특히 비공개 필요성이 중요하고, (향후) 합참·방첩사·707 중에 일부 (비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9월까지 총 16회 기일 잡아… 김용현 재판도 장기화 조짐

한편, 전 대통령 윤석열씨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김용현·노상원 재판 역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9월까지 월 3~4회씩 총 16회 기일을 제안했다. 지난 21일 재판부는 윤씨 공판 기일을 12월까지 미리 잡아놓은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과 다르게 증거 능력을 완화해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결정문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피선거권 없는데?" 지적에 '대선 출마' 선언한 전광훈 답변은

2019년 9월 대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확정
'피선거권 없다' 지적엔 다른 사건 무죄 들이밀며
"재심에 대한 효과 있다" 궤변도

극우 집회를 이끄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그의 출마자격이 논란이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는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범'은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권까지 제한되기 때문이다.

24일 전 목사는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 기존 정치인들이 이 따위로밖에 정치를 못하느냐"라며 "양당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곧바로 전 목사가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전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불법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019년 9월 2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18년 나온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전 목사가 이번 판결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짚으며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선거범)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없다. 전 목사의 경우 항소심 판결문에 공직선거법 254조 제2항,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255조 제1항 제2호 등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상 대선 출마는커녕 이번 대선 투표까지 어려운 상황이다.

전 목사는 이러한 지적에 "그 문자 메시지는 우리 교회 사무원들이 보낸 것"이라며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했다고 거짓말해서 6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어 "좌파 단체에서 나를 내란선동혐의,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등 76개 혐의로 고발했는데 완전히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다른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내가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는데 왜 선거에 못 나가느냐"며 "앞에 것(2019년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사실)은 사실 무효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두 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죄 판결을 받은 다른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전 목사는 재차 "선거법 위반은 앞의 것은 무효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재심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대한민국 헌법 기관을 해체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다수 내놨다. 그는 5호 공약에 '선거관리위원회 완전 해체 후 재구성', 6호에 '헌법재판소를 폐기', 8호 '국회를 바로 해산하고 3개월 안에 재선거' 등을 주장했다.

이밖에 전 목사는 "독일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를 10배로 확대하여 실업률을 제로로 만들겠다", "결혼하는 자들은 무조건 국민 주택을 무료로 공급하여 저출산을 막아낸다", "간첩죄는 국내자를 비롯한 외국의 간첩죄까지 막론하고 무조건 처벌한다"는 등 허무맹랑한 공약을 쏟아냈다.

'코인 사업' 미끼로 330억 원 꿀꺽 고령층 노린 폰지사기단 적발

피해자 10명 중 8명, 50~70대 사이 연령 분포
경찰 "가상자산 지식 부족한 점 이용해 범행"

투자금의 일부를 매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폰지사기를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328억 원을 챙긴 조직원 18명이 검거됐다. 폰지사기는 선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후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돌려막기식 금융사기를 의미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50대 남성인 총책 A씨·모집 총책 B씨 등 운영진을 비롯해 폰지사기 조직원 18명을 형법상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총책 A씨는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모집 총책 B씨도 지난 10일 구속 송치됐으며 나머지 조직원 16명도 이날 모두 송치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비트코인(BTC)과 테더(USDT) 교환 거래를 중개해 수익을 창출하고,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408명으로부터 328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인·허가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서울·대구·부산·경기·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홍보활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초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해당 조직이 등록·인가 없이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설명회에서 비트코인을 테더로, 테더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호 중개를 해주는 '블록딜 스왑 거래 사업'을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동시 거래가 이뤄져 원금 손실이 없는 데다 매일 6%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투자자 개개인에게 매일 2%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운영진, 자금관리책, 투자모집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전국에 226개의 센터를 구축해 사업설명회를 벌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수사 결과 이들이 홍보한 '블록딜 스왑 거래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수위 투자자의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A씨는 185억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블록딜 스왑 거래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도 포착됐다. 경찰은 이들의 수익 중 65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50~70대 사이가 총 85.9%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대부분 50~70대 사이인 피해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단 점을 이용해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사업의 실체에 대한 면밀한 확인 없이 안정적 수익 보장, 특히 원금 보장 약속만을 믿고 투자할 경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농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트 여행사
Jet Express
Travel Agency & Tours



* 전세계 항공권 및 호텔 예약
* 한국출발 항공권 발권
* 패키지 여행 전문 및 크루즈
* 맞춤전문 여행 및 골프투어
  차량운행 · 렌트
* 산업시찰 · 공무 · 기업연수 · 학회
  전시 행사 안내 (중미 전국가)



mail : jetexpressgua@yahoo.com / 13 Calle 3-40 Local 41 2 do Nivel Edificio Atlantis Z.10
Tel : (502)2385-4646 직통전화 : (502)2383-4324 HP : (502)5867-5867

국 제

트럼프 '협상하자' 압박에도 시진핑 '묵묵부답', 왜?

트럼프, 잇따라 낙관론 펴며 "중국과 매일 협상 중"
참모는 '협상 시작 안했다'…시진핑 나서라는 압박?

미중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잇따라 중국에 무역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중국과 매일 협상중"…연일 낙관론 펴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취재진이 '얼마나 빨리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내릴 수 있느냐'고 묻자 "그건 중국에 달렸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2~3주 안에 관세율을 (새로) 정할 것"이라며 "(이 새로운 관세율에는) 중국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 매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중국과의 무역협상 상황을 묻는 질문에 "지금 (미국은) 황금시대이고 중국은 그것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라며 "우리는 중국과 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강하게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우리는 매우 잘 대해 줄 것이며 그들도 매우 좋게 행동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협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중국 관세율에 대해서는 "(현재의) 145%는 매우 높다"라면서 "(협상시 관세율이) 그 정도 높게 있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은 매우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제로(0%)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는 "우리는 중국과 대화 중이다. 그들이 수 차례 연락해왔다"면서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3~4주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23일 한 대담에서 미중간 관세문제에 대해 "양측 모두 그것이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대중 관세율 인하를 시사했다.

그는 "이는 무역 금수 조치에 상응하는 것이며, 양국간 무역 중단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내가 이전에 말했지만 (미중간) 빅딜의 기회는 있다"고 낙관론을 폈다.

협상 시작 안했다는데…시진핑 나서라는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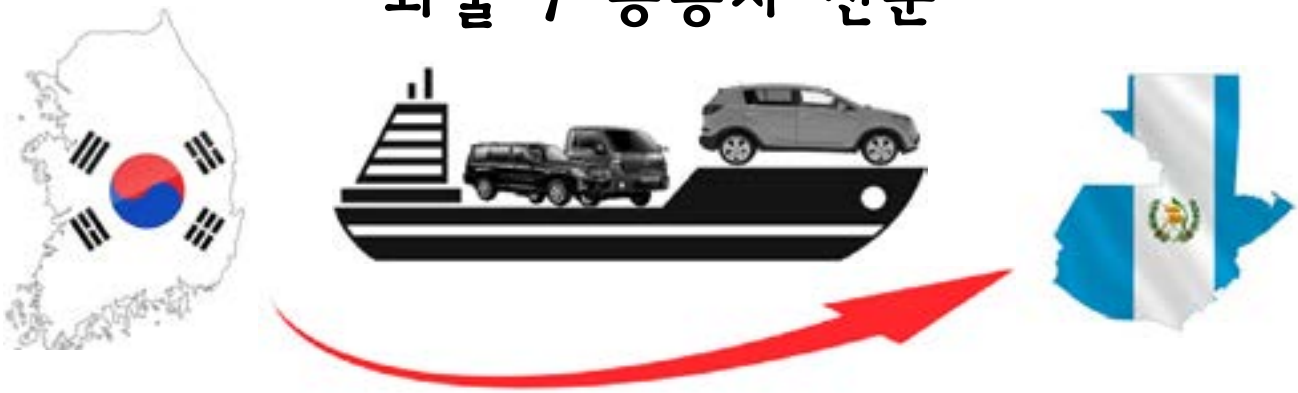
다만, 관세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베선트 장관은 연이틀 중국과의 협상이 아직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과 대화 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한 "대화 중", "매일 (협

명 진 정 밀
뚤람수 로떼 9 만사나 A 섹또르 5
소나 4 데 믹스꼬
전화 : 이사삼사-이이오이/일오삼사
팩스 : 이사삼칠-팔구영칠
핸드폰 : 오영영사-영팔영육
마이깡 몰드 제작
재단기 부속 판매
패턴 포마 아크릴
마카지,패턴지,밑종이
미싱부속 판매
봉재용 소모품
각종 바늘 판매


자동차 및 부품 구매대행

화물 / 승용차 전문



한국에서 차량 및 부품 구매 대행

39 calle 18-62 Zona 12 ciudad capital

문의 연락처 : 3807-2004

카카오톡 ID : eseuenstar07

자동차 정비 / 부품판매



현대 / 기아 / 쌍용 전문

엔진 / 미션 / 인젝터

디젤 엔진 (가솔린 ×)



상)하고 있다"등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로 양국간 무역협상이 원할하게 진행중이라기 보다는 중국에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관련해 다국적로펌 커빙턴앤벌링의 크리스토퍼 애덤스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협상은 기존 구성된 틀(협상팀)이 가동되거나 두 정상 간 신호가 있을 때 시작된다"라며 협상의 전제조건 두가지를 꼽았다.

현재 양국간 가동되고 있는 협상팀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 간 신호', 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협상을 벌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라이언 하스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랬듯이 시진핑 주석을 직접 상대하고 싶어 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는 무역협상이라기 보다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두 정상의 직접 접촉을 위한 사전 물밑작업을 위한 대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역임한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 대해 "톱다운 외교를 하겠다라는 것"이라며 "정상회담 날짜만 정해라. 그럼 내가 가서 해결한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톱다운? 마지막에 등장 원하는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시 주석을 향해 '직접 나서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지만 중국 측은 양국의 무역협상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외에는 별다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미국이 시작한 관세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라며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위협과 협박을 중단하고 평등과 존중, 호혜의 기초 위에서 중국과 대화해야 한다"며 무역협상 상황과 방식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는 '톱다운'(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의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시 주석은 실무 협상을 거쳐 사실상 최종 단계까지 협상이 마무리된 뒤에야 직접 등장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다 최고지도자의 권위와 체면을 중요시하는 중국 체제의 특성상 시 주석이 처음부터 나섰다가 중국에 불리한 협상 결과가 나오거나, 아무런 성과없이 협상이 결렬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이를 두고 브루킹스연구소의 하스는 "중국은 젤렌스키 사건 이후 시 주석이 세계의 눈앞에서 창피당하거나 밀리거나 실패하는 합의의 일부가 될 위험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차 무역전쟁 준비해온 중국 '시간은 우리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미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한차례 경험한 중국이 그사이 2차 무역전쟁을 대비해왔다는 점도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 배경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트럼프 1기 당시인 2018년 19.3%에서 지난해 14.7%로 크게 낮아지는 등 중국은 수출 시장 다변화로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데 주력해 왔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비한 보복 조치도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기반인 미국 농가에 타격을 주기 위해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줄여왔다.

여기다 최근 미국 보잉의 항공기 인수를 중단하는 등 미국 기업을 정조준한 보복조치를 잇따라 내놓는가 하면 첨단 산업의 핵심 원자재인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며 미국 산업계를 좌불안석으로 만들고 있다.

이와함께 임기가 4년으로 정해진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시 주석은 장기집권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 그리고 체제 특성상 무역전쟁으로 인한 불만을 어느정도 통제 가능하다는 점 등도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며 경제적 피해가 보다 커질 경우 중국내에서도 체제에 대한 불만이 쌓여갈 수 있다.

결국 중국 역시 현 상태를 무작정 끌고갈 만큼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머지않은 시점에 미중 양측이 협상장에서 머리를 맞대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젤렌스키만 때리는 트럼프
美 우크라 평화협상 중재 난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

협상 수용을 강하게 압박했다.

23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크림반도는 러시아 영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데에 대해 격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임박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크림반도 문제로 평화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 "크림반도는 2014년 오바마 정부 시절에 이미 잃은 땅"이라며 "이제는 논의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가 크림반도를 원했다면 왜 11년 전 아무런 저항도 없이 넘겨졌을 때 싸우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우크라이나의 초기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같은 선동적인 발언이야말로 전쟁을 끝내는 데 방해가 된다"며 "젤렌스키의 성명은 '킬링필드'를 연장할 뿐이며,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래에 매우 가까워졌지만, 아무런 카드도 없는 사람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에 새로운 종전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사실상 전쟁을 '동결'하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을 묵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매튜 새빌 영국 왕립국방연구소(RUSI)국장은 "미국이 크림반도를 공식 인정한다면 이는 무력에 의한 영토 변경을 국제사회가 승인하는 중대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입장과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크림반도의 러시아 점령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조건 없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휴전을 원한다"고 밝히며, 미국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러시아와는 합의했지만, 젤렌스키와는 아직"이라며 "그와 협상하는 것이 더 쉬울 줄 알았지만 지금까지는 더 어려웠다"고 말해 우크라이나를 평화 협상 지연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실제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평화 협상은 난항에 빠진 모양새다. 이날 런던에서 예정되었던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는 미국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불참을 전격 통보하면서 급히 축소됐다. 회의는 각국 고위 관리들 중심의 실무급 회의로 대체됐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안드리 예르막과 미국, 프랑스, 독일 대표단이 참석했다.

매주 일요일 휴무
월요일~토요일
오전9:30~오후8:00

DON-BAB

DON BAB

솔트 삼겹살 Q85
고추장삼겹살 Q85
간장 삼겹살 Q85
돈까스 Q85
제육덮밥 Q80
불고기덮밥 Q80
DON-라면 Q65
떡볶이(2인분) Q.120

모둠튀김 Q.75
새우튀김 Q.150
어묵우동 Q.80
닭강정 Q.80
찐만두/튀김(6pcs) Q.70
쫄면 Q.80
쫄면 짜장면 Q.80
볶음밥 Q.75

** 새로운 매뉴 **
두부찌게 1인분 Q80
청국장 찌게 1 인분 Q80

김밥류 1줄도 주문 가능
일반김밥 1팩 Q75/1줄 Q40
불고기김밥 1팩 Q85/1줄 Q45
참치김밥 1팩 Q85/1줄 Q45

배달 주문 받습니다
현지인주문 4105-8583
한국인주문 3056-8176
WhatsApp & 카톡으로 주문 가능
DONBAB-7

아래 콤보 메뉴를 주문하시면
두가지 맛을 즐기실수 있습니다!
A. 떡볶이+순대 (음료수 포함) Q100
B. 떡볶이+김밥 (음료수 포함) Q100
(김밥 종류 세가지 중 선택사항)
C. 떡볶이+돈까스 (음료수 포함)Q100
D. 떡볶이+튀김 (음료수 포함) Q100
E. 떡볶이+우동 (음료수 포함) Q100
F. 떡볶이+ 볶음밥(음료수 포함)Q100

JD 밴스 부통령 측도 이날 “미국은 양측(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게 명확한 제안을 했다”며,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 협상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에서도 아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이날 “협상에는 여전히 많은 뉘앙스가 존재하며, 각국의 입장이 아직 충분히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유럽 평화유지군 배치”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대안으로 유일하게 고려하고 있어 평화 협상의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 잘보이게' 바닥 가깝게 놓인 관…교황, 가는길도 낮은자리에

교황, 생전에 "신자들이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세계 각지서 모인 조문객에 심야까지 긴 행렬…
비가톨릭 신자도 다수

평생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약자들을 보듬는 모습을 보여왔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마지막 가는 길에서조차 우러러 보이길 거부했다.

선종 사흘만인 23일(현지시간) 일반인 조문을 위해 생전 거처인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성 베드로 대성전으로 옮겨진 교황의 관은 나지막한 목재 받침대 위에 놓였다.

과거 교황들의 관이 성인 허리 높이의 관대(棺臺·Catafalque) 위에 올려진 경우가 많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관이 올려진 받침대는 그를 조문하러 온 일반 신자들이 얼굴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래쪽이 바닥에 닿을 듯 비스듬하게 경사가 져 있었다.

바티칸을 상징하는 청동 구조물인 발다키노(천개, 天蓋) 아래에 잠든 듯 누워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얼굴 앞에 선 신자들은 조용히 성호를 긋고 짧은 기도로 그와의 이별을 애도했다.

최초의 남미 출신 교황이자, 청빈과 봉사를 강조하는 예수회 소속의 첫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의 장례를 과거처럼 성대히 치르지 말고, 일반 신자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생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성 베드로 대성당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조문객의 수는 이날 한때 10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이날 오후 7시 30분 현재 입장할 수 있었던 조문객은 2만명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이었고, 이에 바티칸은 자정 이후까지 대성전을 개방해 계속 조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BBC는 바티칸 현지 경찰이 조문객들을 위해 성 베드로 대성당을 밤새 열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하려는 이들 가운데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신자뿐 아니라 지금껏 그가 보여온 삶의 방식에 경의를 표하려는 비(非) 가톨릭 신자도 적지 않았다고 WP는 덧붙였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을 견디며 입장 순서를 기다리던 조문객 몇몇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찬송가를 읊조리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더위와 기다림을 이겨내려는 이도 있었다.

인도 남부에서 바티칸 순례를 왔다가 프란치스코 교황을 조문하게 됐다는 마리 엘리자 사지브(19·여)는 "매우 먼 곳에 살지만 그분은 항상 내 곁에 있었다. 그분은 내 교황님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이 사치와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욕망, 자신을 우선시하려는 욕심으로 가득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분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쳤고, 다른 이를 먼저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착한 일을 하도록 가르쳤다"고 토로했다.

로마에 거주하는 이탈리아인 카밀라 멜리스(27·여)는 더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데도 프란치스코 교황을 존경한다면서 "이번 교황은 이전의 어느 교황보다도 나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나와 같은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난 그의 영혼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성 베드로 대성당 앞에는 입장 순서를 기다리는 조문객들의 행렬이 여전히 길게 늘어서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일반 신자의 조문은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는 26일 오전 10시 성베드로 광장에서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단 단장이 집전하는 가운데 엄수된다.

중국 저장성 초등학교에서 차량 돌진 또 사회적 복수 사건인가

홍콩 언론 보도…중국 본토에선 조용

중국 저장성 진화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 사이로 차량이 돌진해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홍콩 명보가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22일 오후 5시 45분 진화시 수멍향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엑스 등에 유포된 영상을 보면 학교 정문 앞에 은회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서 있고 주변에 여러 사람이 쓰러져 있다. 대부분 가방을 멘 학생들이었다. 머리가 피로 뒤덮인 채 쓰러져 있는 성인도 있었다.

영상은 비명과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했다. 차량 주변의 화단이 망가져 있고, 사람들이 차량을 에워싸고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학교 인근 상인들은 하교 중이던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은 2명이 진화모자보건병원에 입원했다고 명보가 병원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NN은 최소 5명이 쓰러져 있는 영상을 내보냈다. 온라인에서는 부상자가 10명 이상이라는 소문과 사망자도 있다는 소문도 돌았으나 명보는 당국을 통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사고 사실만 전하고 구체적 정황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 명보에 따르면 수멍향 정부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거부하며 공식적 통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진화시 교육당국은 현장에 특별작업팀을 파견했으나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중앙TV(CCTV)를 비롯한 중국 관영매체들은 23일까지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다. 웨이보 등 중국 SNS에서는 사건 관련 영상도 검색되지 않는다. 위챗에도 영상이 올라왔으나 삭제됐다고 반중 성향 매체 대기원시보가 전했다. 일부 중국 매체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간략히 보도했다.

베이징에서는 명보 보도가 나온 시점을 전후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구글, 네이버 등 해외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대중을 향한 무차별 공격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광둥성 주하이시의 스포츠센터에서 승용차가 군중을 들이받아 3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당했다. 며칠 뒤 장쑤성 이싱시의 직업전문학교에서 흉기 공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범인들은 각각 이혼 후 재산분할과 실습생 노동 착취로 인한 분노가 범행동기라고 진술했다.

경제난으로 인해 절망과 분노를 사회에 복수하는 형태로 해소하려는 욕구가 범행 동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독 어린이들이 공격 사건의 표적이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싱 사건 이후 후난성 등지의 초등학교에서 차량 돌진사건이 있었으나 자세히 보도되지 않았다. 주하이와 이싱 사건의 범인들에게는 지난해 말 사형이 집행됐다.



스 포 츠

‘바람의 손자 또 날았다’ 이정후, '시즌 3번째 3안타'

전날 경기에서 무안타로 침묵하는 등 최근 11타수 무안타로 타격감이 떨어진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샀던 이정후가 보란듯이 3안타를 몰아쳤다.

이정후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밀워키 브루어스와 경기에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1득점으로 4-2 승리를 이끌었다.

이정후는 이날 경기 전까지 2경기 연속 안타를 못 친 적이 없다. 전날 경기에서 5타수 무안타로 침묵했지만 이날 경기에서 안타를 추가하면서 해당 기록을 이어갔다. 또 안타 3개를 추가하면서 전날 0.315까지 떨어졌던 타율은 0.333로 회복했다. OPS도 0.969로 끌어올렸다.

이정후가 상대한 밀워키 선발 프레디 페랄다는 메이저리그 8년 차로 두 자릿수 승리를 세 시즌 달성한 수준급 투수다. 2021년, 2023년 12승, 그리고 지난해 11승을 올렸다. 이번 시즌에도 2승 1패 평균자책점 2.43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펼쳤다.

처음 만나는 투수였지만 이정후에겐 문제없었다. 1회 첫 타석에서 볼 카운트 0-2에 몰리고도 시속 93.9마일 포심 패스트볼을 밀어쳐 좌익수 앞에 떨궜다.

4회 3루 뜬공으로 아웃된 이정후는 6회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무사 1루에서 페랄타가 던진 초구 88.5마일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익수 앞 안타로 연결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가 이어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다음 타자 맷 채프먼이 걸어나가면서 무사 만루를 만들었고 윌머 플로레스가 안타로 1루 주자와 이정후를 홈으로 불러들이며 길었던 0의 균형을 깼다. 헬리엇 라모스가 스윙으로 잡혔지만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땅볼에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고, 2사 후 크리스티안 코스의 1타점 적시타로 단숨에 4-0을 만들었다.

세 번째 안타는 행운이 따랐다. 7회 네 번째 타석에서 땅볼을 쳤는데 포수 앞에서 튀었다. 타구 속도가 느려 이정후가 1루에서 살기 충분한 타구였다. 그간 안타성 타구를 호수비에 빼앗겼던 이정후에게 모처럼 주어진 기분 좋은 안타였다.

이정후는 채프먼의 볼넷에 2루로 진루했다. 다만 플로레스 타석에서 기습적인 3루 도루를 시도하다가 아웃됐다. 밀워키 포수 윌리암 콘트레라스는 이날 경기 전까지 이번 시즌 도루 저지가 7개로 리그에서 가장 많다.

13일 만에 홈 경기를 맞이한 샌프란시스코 팬들은 밀워키와 홈 3연전에서 이정후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변함없이 "정후리"를 합창했다. 이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

밀워키와 3연전 첫 경기를 치른 뒤 현지 기자가 3루타를 친 뒤에 나온 '이정후 챈트'에 대한 소감을 묻는 말에 이정후는 "감사하다. 그런 희열감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정후는 오라클파크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날 경기 전까지 홈에서 타율 0.314, 출루율 0.333, 장타율 0.543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기자가 '시즌 개막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팀 내 최고 타자가 되어있다. 지난해 부상으로 빠진 것을 뒤로 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건지' 묻자 이정후는 "개인적으로 증명하고 싶었던 것도 있다. 팀에서 재활하는 동안 너무 잘 케어해 줘서 보답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이정후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서도 구단과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보이기도 했다. "몸 상태는 정말 좋다. 빨리 경기에 나서고 싶은 마음뿐이다. 개막전 준비는 다 됐다"며 "한국에서 7년, 미국에서 2년 등 여러 번 스프링캠프를 치렀는데 올해가 가장 빨리 지나간 것 같다. 연습량도 많았다. 최고의 구단에서 최고의 지원으로 건강한 복귀를 도와줬다. 팀에 보답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어릴 때부터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었는데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아서 좋다"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 구단에서 주는 햄버거도 정말 맛있다"고 웃었다. 이정후는 최근 샌프란시스코 지역 팟캐스트와 인터뷰에서 '인앤아웃' 햄버거를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밀워키와 지난 2연전을 1승씩 나눠가졌던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승리로 위닝시리즈를 만들었다. 시즌 성적을 16승 9패로 쌓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위 LA다저스와 동률을 맞췄다. 선두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승차는 1경기다.

"김민재 뮌헨 떠난다! 英 아닌 사우디행 가능성↑

'프리미어리거가 아닌 사우디리거.'

김민재(28, 바이에른 뮌헨)의 차기 행선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떠올랐다.

유럽 축구계에 정통한 이적 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민재는 올여름 본인과 뮌헨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제안이 오면 떠날 의사가 있다. 사우디 프로리그 구단들이 뮌헨에 김민재 영입 문의를 시작했다. 유럽 구단들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로마노는 지난 21일에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민재가 올여름 뮌헨과 결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적을 점쳤다. 다소 충격적인 뉴스다. 최근 뮌헨과 결별설이 불거진 김민재의 행선지는 프리미어리그와 세리에A였는데, 뜬금없이 사우디가 등장했다.

지난 22일 이적 전문 매체인 트랜스퍼마르크트는 공식 채널을 통해 "김민재가 뮌헨을 떠날 수 있다. 첼시가 재능의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체가 공개한 김민재의 시장 가치는 4,500만 유로(730



억 원)에 달한다.

프랑스 풋 메르카토는 21일 “김민재가 프리미어리그 이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재 첼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 외 다수 프리미어리그 팀이 김민재 에이전트와 접촉해 이적에 관한 잠재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스카이스포츠의 플로리안 플레텐버그 기자는 19일 “올여름 김민재에게 적절한 제안이 들어올 경우 뮌헨을 떠날 확률이 높다. 그러나 현재 팀의 분데스리가 우승에 전념하고 있다”며 시즌 후 결판날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 빌트의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도 17일 “뮌헨이 김민재의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 5,000만 유로(811억 원)의 이적 제안이 도착할 경우 매각할 것”이라고 점쳤다.

이탈리아 세리에A 깜짝 복귀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겟 풋볼 뉴스 이태리는 20일 “수비 조직이 불안한 유벤투스가 여름 보강을 준비하고 있다. 김민재가 후보에 포함됐다. 김민재는 경기력 기복으로 뮌헨에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구단은 2년 전 5,000만 유로(811억 원)를 투자해 영입한 그를 매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재는 2022/23시즌 나폴리 유니폼을 입고 맹활약하며 팀이 33년 만에 세리에A 정상에 오르는데 일조했다. 이미 이탈리아 무대에서 검증됐기 때문에 전통의 강호인 유벤투스가 장바구니에 담았다. 나폴리는 유벤투스와 지독한 라이벌 관계다. 따라서 김민재가 배신자 취급을 받으며 유벤투스로 향할 이유는 없다. 이후 세리에A 복귀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초부터 아킬레스건염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뮌헨의 부상자 속출로 혹사를 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뮌헨과 한국 대표팀을 포함해 총 55경기를 소화했다. 이동거리만 7만 4,000km에 달한다. 휴식일은 고작 3.7일, 어쩌면 시즌 막판 70경기 가까이 뛸 수도 있다. 현재로선 김민재가 올여름 뮌헨과 결별할 가능성이 크다

'동계AG 3관왕' 쇼트트랙 최민정, 빙상연맹 최우수선수상 "올림픽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3일 '2025 빙상인의 밤' 행사를 열고 2024-2025시즌 최고의 기량을 펼친 선수에게 수여하는 최우수선수상을 최민정에게 안겼다.

최민정은 지난 2월 열린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혼성 2,000m 계주와 여자 500m, 1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3관왕을 차지했다.

또한 최민정은 지난달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 티켓을 확보했다.

최민정은 "많은 분들이 (동계올림픽) 3관왕을 기대하시는데 그런 기록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다.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높여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다가오는 올림픽 시즌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우수선수상은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단거리 간판 김민선에게 돌아갔다.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백철기 감독은 최우수지도자상, 스피드스케이팅 한명섭 심판은 최우수 심판상을 수상했다.

한편 빙상연맹은 이날 이수경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함께 진행했다. 경기인 출신인 이 회장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연맹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인공 팔이 필요하겠어" 세계 톱 골퍼 리디아 고에게 무슨 일?

여자골프 세계랭킹 3위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시즌 첫 메이저대회 출전을 앞두고 악재를 맞았다.

리디아 고는 2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골프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목에 경련을 느껴 잠에서 깼다. 이후 오른팔을 편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말 치료를 많이 받았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평소 같진 않다"고 덧붙였다.

리디아 고는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면서도 "백스윙 때 이상한 감각을 느낀다. 이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오른팔에 감각이 거의 없었고, 지금은 따끔거리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엔 오른손을 벌에 쏘이기도 했다고. 리디아 고는 "이번 주엔 인공 팔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며 웃었다. 그는 "스윙에서 보상 동작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면서 "대회 개막 전까지는 좋아질 것 같다"고 했다.

리디아 고는 25일 개막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 셰브론 챔피언십 출전을 앞두고 있다. 그는 ANA 인스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2016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다.

“타도 안세영” 랭킹 2위 왕즈이, 수디르만컵 의지 활활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2위 중국 왕즈이(25)가 랭킹

1위 안세영(23) “타도”를 외치고 있다. 다음주 중국에서 개막하는 수디르만컵에서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중국 포털 왕이닷컴은 23일 왕즈이가 수디르만컵을 앞두고 한 매체와 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왕즈이는 토너먼트 승부에서 만날 것이 유력한 한국 에이스 안세영과의 대결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디르만컵이 정말 기대된다. 팀 경기는 아주 색다른 경험이다”면서 “토너먼트에서 한국과 맞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기 전에 상대(안세영)를 분석하고 잘 준비할 것이다. 경기에서는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디르만컵은 세계 배드민턴연맹(BWF) 회원국들이 참가하는 국제 배드민턴 혼성 단체전 대회로, 정식 명칭은 세계 혼합 단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다. 2년마다 열리는 수디르만컵은 올림픽 다음으로 큰 대회인 국가대항전으로 꼽힌다.

수디르만컵은 상대 국가와 남녀 단식과 복식, 혼성 복식 등 5개 세부 종목으로 맞붙는다. 한국은 2년 전 결승에서 중국에 0-3으로 패해 준우승했다.

오는 27일 중국 샤먼에서 개막하는 이번 대회에서 중국은 대회 4연패에 도전하고, 한국은 2017년 이후 8년 만의 우승에 도전한다.

16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중국은 홍콩, 태국, 알제리와 함께 A조에 속했고, 한국은 대만, 캐나다, 체코와 함께 B조에 속했다.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중국의 수성 의지는 대단하다. 특히 한국과의 승부에 우승 향방이 걸려있다고 보고 ‘타도 한국’을 외친다. 그 중에서도 여자단식은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버티고 있어 중국으로서는 큰 승부처로 꼽고 있다.

중국은 여자 단식 대표로 나설 것이 유력한 랭킹 2위 왕즈이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왕즈이는 전영오픈 결승에서 안세영에게 1-2로 패해 우승을 내준 아픔을 설욕하겠다고 벼른다. 왕즈이는 “지난해 좌절과 침체를 겪은 후, 천천히 회복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경험은 의미있고 보람이 있다. 이런 사고방식의 변화는 그 후의 경기에서 점점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국도 새로 선임된 배드민턴 레전드 박주봉 감독의 지도 아래 이번 대회를 단단히 준비해왔다. 전영오픈에서 우승했지만 허벅지 부상으로 이달 초 아시아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던 안세영도 몸상태를 회복해 출격 준비를 마쳤다. 안세영은 올해 출전한 4개 대회에서 전승으로 모두 우승을 달성했다. 랭킹 1위 안세영이 이번엔 단체전 핵심 멤버로 한국의 우승을 향해 에이스로 뛴다.

CAFÉ TAN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로~
그리고 즐거운 여행에서 쉽게 품질좋은 커피를
드실수 있는 드립백 커피 예약 받습니다.



4739-9391, 2425-7519

CAFE TAN cafe_tangt

CAFE TAN : Bulevar Principal
C.C. San Cristobal Mixco Local 24

PedidosYa 배달가능



방 송 / 연 예

설경구 · 장동건 '보통의 가족' 디즈니+ 효자됐네…韓 1위 등극

'보통의 가족'이 안방극장 관객을 사로잡았다.

24일 배급사 하이브미디어코프에 따르면 영화 '보통의 가족'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글로벌 OTT 플랫폼 디즈니플러스에서 국내 1위에 올랐다.

앞선 16일 디즈니플러스에서 공개된 '보통의 가족'은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던 네 사람이 아이들의 범죄현장이 담긴 CCTV를 보게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담은 웰메이드 서스펜스다.

영화는 지난해 10월 개봉 당시 허진호 감독의 탁월한 연출력과 설경구, 장동건, 김희애, 수현의 압도적인 연기 앙상블,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전개 등으로 언론과 관객들의 열렬한 호평을 받았다. 또 제48회 토론토국제영화제, 제18회 런던한국영화제, 제26회 우디네극동영화제, 제44회 판타스포르토국제영화제, 제26회 타이베이영화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등 전 세계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며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보통의 가족'은 디즈니플러스 외에도 현재 IPTV(SK Btv·KT Genie tv·LG U+tv), 디지털케이블TV(홈초이스), 웹하드, 구글 플레이스토어, 씨네폭스, 웨이브, 왓챠, 쿠팡, KT Skylife 등 다양한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에서 관객을 만나고 있다.

중년 로맨스 통했다.. 반환점 '독수리 5형제' KBS 주말드라마 부활 기세 잇나

'독수리 5형제'가 KBS2 주말드라마의 인기 부활을 이끌었다.

시청률 20%(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고지를 빠르게 밟은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이하 '독수리 5형제')가 이제는 30% 돌파를 향해 달린다.

'독수리 5형제'의 성적은 앞서 방송된 KBS2 주말드라마들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하다. 전작인 '다리미 패밀리'는 자체 최고 19.7%를 기록하며 20%를 넘는 데 실패했다. 이에 앞서 '미녀와 순정남'은 42회 만에, '효심이네 각자도생'은 33회 만에 20%를 겨우 넘었다. 반면 '독수리 5형제'는 지난 2월 15.5%로 출발한 후 14회 만에 20%를 돌파했다. 이어 '독수리 5형제'는 18회에서 자체 최고 21.2%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짝수 회차 기준 안정적으로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년 로맨스 통했다…안재욱 등 노련미 빛나

'독수리 5형제'의 인기 요인으로 중심 서사인 중년의 로맨스가 꼽힌다. 드라마는 결혼한 지 열흘 만에 남편

중국성
JUNG KUK SUNG
세트 메뉴 1인 SET, 2인 SET, 3인 SET
인기 메뉴 고추짜장. 야끼우동. 새우볶음밥. 삼선볶음밥
고추잡채. 불족발. 양장피. 난자완스
매주 수요일 휴무 ※ 신속배달 ※
2212-5639,2439-3508,5005-3567 카톡 //WhatsApp 주문가능 / 36Ave. 1-59 Z.7 Col. Toledo



오장수(이필모)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가장이 된 맏형수 마광숙(엄지원)이 남편이 운영하던 막걸리 공장을 이어받으며 시작된다. 이후 LX호텔 회장 한동석(안재욱)과 우연한 기회로 여러 번 엮이면서 이들의 로맨스가 유쾌하게 펼쳐진다. 여기에 광숙의 시동생이기도 한 4명의 형제들이 20대부터 40대까지 세대별로 여러 갈래의 로맨스를 만들어가며 흥미를 더한다.

로맨스 연기를 책임지는 중년들의 탄탄한 연기력이 캐릭터들을 더 생동감 있게 그려낸다는 평가다. 광숙과 동석의 러브라인은 배우 안재욱과 엄지원의 노련한 연기가 빛난다. 특히 안재욱은 지난 2016년 KBS2 '아이가 다섯' 이후 9년 만에 지상파 및 KBS2 주말드라마에 복귀했는데, '원조 로맨스 킹'임을 입증하며 여성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배우 최대철(오천수 역), 박효주(문미순 역) 등 극중 광숙의 시동생들과 로맨스 상대 배우들의 구력도 만만치 않다.



◇'막장'보단 긍정적 서사…'가족' 의미는 그대로

'독수리 5형제'에서는 '막장' 요소를 찾기 어렵다. 기존 주말드라마가 개연성 없는 전개로 설득력을 떨어뜨려 지적을 받은 것과 비교된다. 로맨스를 중심으로 슴슴한 분위기에 가까운데, 그 지점이 시청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차별점이라는 분석이다. '독수리 5형제'는 여자 주인공인 광숙이 주체적으로 술도가를 운영하고 성공을 하는 과정 등 힐링 서사도 담고 있다. '독수리 5형제'는 오는 26일 총 50부작의 절반인 25회 방영을 앞두고 있다. '독수리 5형제'가 기세를 몰아 시청률 30%를 돌파할지 궁금증을 모으는 상황이다. KBS2 주말드라마가 마지막으로 30%의 벽을 넘은 것은 자체 최고 38.2%를 기록한 지난 2021년 '신사와 아가씨'다.

앞으로 '독수리 5형제'는 기존 이야기에 '가족'의 서사가 자연스럽게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CP는 일간스포츠에 "극중 동석이 광숙을 향한 마음을 자각했는데, 이를 어떻게 광숙이 받아들일지가 하나의 시청포인트"라고 귀띔하며 "광숙이 어떻게 마음을 열어갈지에 대한 것은 물

론 전 남편에 대한 마음, 시동생들 간의 관계가 가족이라는 관계 하에 어떻게 풀릴지가 재미 요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대중문화 평론가는 "상대적으로 중년 로맨스를 그린 작품들은 많지 않다. '독수리 5형제'는 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주말드라마의 주요 시청자층인 중장년 여성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며 "'독수리 5형제'의 이 같은 인기는 짜임새 높고 재밌는 이야기라면 막장 요소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짚었다. '독수리 5형제'는 매주 토, 일요일 오후 8시 방송된다.

"선물 받은 초콜릿 팔아 집 장만"… 강하늘, 국악예고 시절 인기에 입 열어



23일 방송된 tvN 예능 '유퀴즈 온더블럭'에서 배우 강하늘이 출연했다.

어느 덧, 데뷔 18년차라는 강하늘은 "연기자 아닌 연극에 종사하고 싶었다예고를 가고 싶었다"고 했다. 신혜선과 국악예고 동기라는 것.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에 뷔페서빙, 주유소, 전단지, 오리농장 숯 옮기는 아르바이트도 했다는 강하늘은 "깨끗하면 집어 먹기도 했다"며 웃음짓게 했다.

이때 강하늘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공개했다.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이 쌓였다는 소문에 강하늘은 "아니다"고 했으나 유재석은 "부친이 초콜릿 팔아서 집장만해도 될 정도였다더라"며 솔직하게 말하라고 해 강하늘을 민망하게 했다. 강하늘은 "한 두개 정도였다"며 겸손하게 말했다. 이어 "러브레터를 받아보긴 했다"고 말했다.

국악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1990년생 배우 강하늘이 인기와 관련된 미담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유재석은 "오죽하면 별명이 '미담 자판기' 아니냐"며 강하늘의 인성에 대한 여러 일화를 언급했다. 그는 "작품에 들어가기 전 스태프들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 연락망부터 찾고, 막내 스태프들에게 휴대폰을 선물했다더라. 매니저와 차를 탈 때는 뒷자리가 불편하다며 조수석에 앉고, 군 생활 중에는 전우들의 귀를 파주거나 뾰루지를 짜줬다는 얘기도 있다"고 소개했다. 강하늘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다 '아니다'고 하고 싶다. 저만 하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많은 분이 이미 하고 계시는 일들이다"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조세호가 "막내 스태프에게 휴대폰을 선물했다는 건 사실이냐"고 묻자, 강하늘은 "전 스태프가 아니라 막내분들이다. 최근 영화 촬영을 마친 뒤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유재석이 "'스태프 연락망부터 찾는다'는 이야기도 사실이냐"고 다시 묻자, 강하늘은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유재석 선배님이 스태프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걸 보면서 현장의 분위기가 따뜻하게 그려지더라. 같은 작품에 참여하는 동료인데 '저기요'라고 부르는 건 정이 없어 보이지 않냐"며, 그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BTS 지민→진 업는다 '도라이버' 출격! 예능 대환장 예고



'도라이버:잃어버린 나사를 찾아서'로 방탄소년단 진이 또 한번 존재감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홍김동전'에 나온 멤버로 그대로 구성한 '도라이버'. '홍김동전'에 출연했던 지민에 이어 이번엔 진을 업는 격이 됐다.

23일 OSEN 취재에 따르면, 진은 해당 프로그램의 촬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출연분은 현재 방영 중인 부산 우정 여행 편 이후인 5월에 공개될 예정.

'도라이버:잃어버린 나사를 찾아서'(이하 도라이버)는 김숙, 홍진경, 조세호, 주우재, 장우영 등 개성 넘치는 예능인들이 출연해 나사 없이 인생을 조립하는 형식의 유머 가득한 버라이어티쇼다. 이 프로그램은 2월 23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빠르게 '오늘 대한민국 TOP 10 시리즈' 1위에 오르며 큰 인기를 얻으며 존재감을 확실히 했다. 특히, 예능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은 '홍김동전'의 후속작으로 기대감을 키웠던 상황. 그도 그럴게, 이미 멤버

구성자체가 '홍김동전' 그대로이기도 하다. 다섯 멤버들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이유. 여기에 더해, '도라이버'에서 진의 출연은 더욱 특별하다. 바로 방탄소년단의 지민에 이어 두 번째로 홍김동전 멤버들과 만나는 기회이기 때문.

앞서 지민은 이전에 '홍김동전'에 출연해 그만의 유머와 재치로 큰 웃음을 선사하며 예능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제 진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김숙, 홍진경, 조세호, 주우재, 장우영과 함께 출연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이고 있는 것. 지민이 이미 예능에서 뛰어난 케미를 보여준 만큼, 진이 또 어떤 모습으로 예능 감각을 발휘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무엇보다 진은 이미, 전역 이후 다양한 예능에 출연하며 뛰어난 예능감을 보여줬다. '푹 쉬면 다행이야', '핸썸가이즈', '동네스타K4' 등에서 특유의 유머와 진지한 태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엔 '대환장 기안장'에서는 진정성 있는 태도와 유머로 웃음의 정점을 찍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도라이버'에서는 그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홍김동전 멤버들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지 더욱 기대감을 자아낸다.

그동안의 예능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폭넓은 매력을 발산할 진이 어떤 유머와 예능 감각으로 분위기를 끌어갈지 많은 팬들이 주목하고 있다. 진의 참여로 '도라이버'는 더욱 활기차고 대환장한 재미를 예고했다.

'학씨' 최대훈, "나는 관식이에 더 가까워" 부인 이야기에 함박 웃음



'학씨 아저씨'로 뜬 배우 최대훈이 아내가 자신을 관식이에 더 가깝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방송된 tvN 예능 '유퀴즈 온더블럭'에 출연한 최대훈은 "아내가 지인과 통화하며 '우리 남편은 관식이'라고 했다"고 답했고, 유재석은 "아내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거의 확실한 거 아니냐"고 했다.

'학씨 아저씨'로 화제가 된 후 가족들 반응을 묻자 최대훈은 "우리 아내는 기자처럼 새로나온 기사, 밈, 쇼츠, 영상을 계속 보낸다, 같이 집에 있는데"며 최근 인기에 신난 두 사람의 근황을 공개했다. 최대훈은 4살 연하인 미스코리아 선 출신 배우 장윤서와 결혼했다.두 사람은 2013년 드라마 '미친 사랑'을 통해 인연이 됐고 연인사이로 발전, 결혼했다. 무명 시절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최대

박상민 healthcare chlinic

가정의학과
박상민 헬스케어 클리닉



응급진료
방문진료



파워 면역주사
고용량 비타민 C
글루타치온, 신델라



예방접종
독감, 폐렴, 대상포진
자궁경부암, 백일해



간해독 주사
만성피로
잦은 술자리 컨디션저하



심장대사질환
건강검진
고혈압,심장병,당뇨병

진료시간 : 월~금요일 9 am~9 pm (예약필수)
토요일 점심시간 없이 9 am~2 pm (예약필수)
병원전화 : 2439-8225 응급전화 : 4004-6267
waze/goole/uber : 박상민 클리닉으로 찾아주세요.

훈은 “결혼을 먼저 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아이에게 책을 읽어줬다. 그런데 그 책값이 1만8000원이었다”며 “내 아이에게 책을 양껏 사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어 “신혼 때 생활비로 아내에게 100만 원이었다”며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떠올렸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아내에게 “12년만 기다려달라”고 말하며, 결혼 당시의 다짐을 굳게 지켰다고 했다.

“결혼할 때 ‘보여줄게, 해낼 거야’라며 이를 꽉 깨물었던 그 다짐을 아직도 잊지 않는다”며 결혼 초의 어려움과 함께 성장해온 시간을 돌아봤다. 딸이 태어났을 때를 떠올리며 최대훈은 “그때 소속사에 출연료 30만 원을 올려달라고 처음으로 부탁했다. 태어나 처음으로 말했던 일이라 너무 떨렸지만, 결국 오케이 해주셨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최대훈은 “그때 그 출연료가 올랐을 때, ‘100만 원 어치 더 잘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결혼 후 성장한 자신의 모습에 뿌듯해했다.

국민의힘 창구가 된 'SNL 코리아', 이번엔 한동훈 대표가 출격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차례로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7’에 모습을 비추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22일 개인 채널에 자신을 흉내 낸 개그맨 정성호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동훈 후보를 묘사하기 위해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정경호와 달리 한 후보는 흰색 반팔 차림을 한 모습으로 등장해 시선을 모았다.

한 후보는 'SNL 코리아7'의 '지점장이 간다' 코너에 출연할 예정이다. 녹화는 지난 21일 마쳤다. '지점장이 간다'는 배우 지예은이 편의점 지점장 역으로 나와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면접 보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그는 출연자에게 민감한 질문을 던지며 시청자 웃음을 유도한다.

해당 코너에는 대선 경선에 뛰어든 홍준표, 김문수 후보도 출연한 바 있다. 당시 홍준표 후보는 지예은이 "이재명도 아르바이트 지원했는데 그분 어떤 것 같나"고 묻자 "양OO이죠"라고 답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예은이 "가장 진상 알바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세 명 중 한 명만 골라달라"며 한동훈, 홍준표, 이재명을 언급하자 이재명을 고르며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유부남인데 총각 행세한다든지 이런 거는 나와 안 맞다. 난 그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재명을 '쉰 요구르트'에 비유하며 "'쉰 요구르트'는 이제 부어 버려야죠"라고 저격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SNL 코리아7' 출연은 추후 있을 대선 경선에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전 시즌인 'SNL 코리아6'에서는 조국 혁신당 전 대표 조국이 출연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개인 채널에 정성호가 자신을 패러디 했던 영상을 재차 공유하며 "코미디언 정성호에게 감사하다"는 글을 남기기기도 했다. 이처럼 'SNL 코리아'에서는 정치 풍자 및 정치인 패러디에 더해 직접 정치인이 출연하면서 관객들의 흥미와 관심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임신' 이하늬, 둘째 성별 암시 '꽃무늬' 꼬까신



임신 소식을 전한 배우 이하늬가 둘째의 성별을 암시하는 듯한 사진을 공개했다. 23일 이하늬는 개인 채널에 "예쁜 꼬까신"이라는 글과 함께 꽃무늬 프린팅이 새겨진 가방과 신발 등 유아용품을 공개했다. 한 손에 잡힐 정도로 조그마한 신발 사이즈가 귀여움을 자아내는 가운데, 함께 놓인 노란색과 분홍색 파스텔톤의 양말도 시선을 모은다.

지난달 7일 이하늬의 둘째 임신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측은 "이하늬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라며 "아직 임신 초기단계라 출산 예정일은 공개가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하늬는 2021년 12월 금융업 종사자 남편과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이하늬는 첫째 출산 3년 만에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려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다. 둘째의 성별은 공개된 바 없으나, 이하늬는 오늘(23일) 꽃무늬 유아용품을 자랑하며 둘째의 성별이 딸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최근 이하늬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고 60억 원 상당의 세

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알려져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팀호프 측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신정환 주장 '연예계 성상납'…경찰에 수사 촉구 민원 접수 "중대 사안"



가수 겸 방송인 신정환이 유튜브에서 여자 연예인 성접대 관련 주장을 한 가운데, 이번 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넣었다.

23일 한 민원인은 신정환이 최근 유튜브를 통해 이야기한 연예인 성상납 폭로와 관련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글에는 "유튜브 '논논논'에서 연예인 성상납 정황이 구체적으로 폭로돼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여성안전과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민원인은 "연예계에서 은폐돼 온 성접대 관행의 한 단면을 드러낸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연령 제한 없이 유튜브로 무제한 확산되고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고정해' 채널에는 '[논논논] 역대급 난상토론! (feat.권력,연예인,성상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신정환은 연예인 성 접대에 관해 이야기야기 하며 "내 주위에 아는 형들이 얘기하는 걸 우연히 차 마시다가 들었는데 설마 싶었다"라며 "내가 아는 후배들의 이름이 나오더라, 옆에 있는 사업하는 선배들은 내가 옆에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고 본인끼리 얘기했다, '나 어제 누구 만났잖아'하면서 금액까지 얘기하더라. 내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한 명의 이름이 나왔는데 동시에 3명을 만난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며 "진짜 돈을 받고서 사업가들 만나서 골프 치고 밥 먹고 술 먹고 또 그렇게까지 하니까"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병규는 "지라시 리스트가 한 번 돈 적이 있다"라며 "명단과 가격표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찌라시가 돈 적이 몇 차례 있다"며 설명을 더했다.



교 민 장 터

과테말라 거주 교민들의 중고 거래 무료장터 입니다.
부동산 임대, 자동차 판매, 구직광고는 유료입니다.

물품·부동산	광고 Parque 14. 아파트 세놈 99m2, 방 3개, 화장실 2개 16층, 전망 좋음 월 Q10,0000 문의: 53109745	광고 보데가 세 놈 1,200MTS Villa nueva 대로 위치 최상 20M * 60M 연락처: 3018- 6874	광고 보데가 세 놈. 월 $3,500 봉제 4개라인 (닥트설비있음) 3,200m² Villa nueva (구)영남1 연락처 3140 - 1547
	스텐 식탁 구매합니다 4218-7400	첼로 하드 케이스(흰색). 악보 거치대(새거) 첼로 받침대(새거) 셋트 판매.그외 전자제품 , 가구 판매 합니다.TEL.5612-9793	야채냉장고.김치냉장고 구합니다 2394-0121
차량판매	현대 투싼 2019년 87000Km 흰색 아헨시아. 4998-1190		
구인구직	약진통상 채용공고 (11페이지 참조) C-SITE 채용공고 (51페이지 참조)	영신 채용공고 (9페이지 참조)	다산 디엠씨 채용공고 (51페이지 참조)

ShinWon

채 용 공 고

1. 모집 부문 및 지원 자격

구 분	근무처	모집부문	인원	지원자격
경력	니카라과	생산 기획	0 명	▷ 영어 / 스페인어 업무 진행 가능한자
				▷ 해외법인 근무 경험 보유자
				▷ 유관 경력 5년 이상

2. 전형방법 및 제출 서류

- 1차: 서류 전형
- 2차: 면접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이력서(사진포함) / 자기소개서

3. 지원방법 / 문의

- 이메일 접수: sjlee7@shinwon.com
- 전화 문의: +505 8240 1421

4. 기타

-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됩니다.

나랑호 한인마트

교민들과 함께 하는

나랑호 한인 마트

냉동식품 입고 판매

진정한 매운맛 뼈 없는 닭발~
새우젖갈
비엔나 꼬치다
감자 치즈 핫도그
쉐프스토리 바삭한치즈 핫도그
교자 만두,산동 군만두,김치만두
휠터치 탱글 탱글 소세지
칼국수,중화면,밀떡
냉동 함흥 냉면,막국수
지리멸치,국멸치
소곱창,한우곱창,소막창,대창
미스터 민물 장어
양념 장어
초벌 맛있는장어
렌시 동물 찐빵
보름달 빵Q.8밀떡Q50
단팥빵Q8,모티 고구마빵Q.50
건새우,맛살,매콤한 고추 튀김,전
바로 먹는 한끼 잡채 불고기Q35

밀키트 신상품 인기상품

새우가 탱글 감칠맛 새우 볶음밥Q25
맛있는 김치 볶음밥Q23
햄 야채 볶음밥Q23
낚지 볶음밥Q25



구슬 아이스크림
레인보우,쵸코 맛 Q20
옥수수 익어가는바
냉동 요구르트 1팩Q60
밥 한그릇 뚝딱
안동 자반 순살 고등어
1팩Q40



롯데 아이스크림 입고
저렴한 가격 판매

외각 지역 배달 서비스

VillaNueva. Plain. Victoria.Antigua 등
월요일 주문 예약 하면 화요일 배송



밀베이커리 빵 입고 판매
단체 예약 주문 환영합니다

한국, 중국 택배 서비스

(주) 샤오싱 로지스틱스
완벽한 포워딩 제공
매주 한국-중국
창고에서 컨테이너 출항

Shaoxing Internacional Logística
Shaoxing_internacional
Shaoxing.Gt_

나랑호 한인 마트:Whats 삼칠삼삼-칠칠칠구 Shaoxing 택배: 삼영사삼-사칠칠이/이이오사-육팔이일

달 빛 조 각 사

지배인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통에, 바닥에는 온통 얼음 조각들이 굴러다녔다.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다. 눈물이 뚝뚝 흐르기도 했다. 그때, 안됐다는 듯이 그들을 보고 있던 이혜연이 무심코 말했다.

"오빠, 오빠 직업이 조각사라고 했잖아.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설의 달빛 조각사! 이현이 로열 로드를 하고 있다면서 잠시 설명을 해 준 적이 있었다. 그걸 이혜연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계산대 앞에 있던 직원들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손님. 손님께서 조각사라고요? 그러면 제발 저희들을 조금 도와주세요."

"....."

이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새에 이야기를 들은 직원들이나 총지배인까지 달려왔다. 그들은 처음에는 너무 어린 이현을 보고 미심쩍어 했다. 하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조각사란 직업은 현실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구하려고 한다면 못 구할 리야 없겠지만, 어떻게 30분만에 이곳으로 데려온단 말인가. 총지배인이 사정했다.

"제발 저희들을 좀 도와주세요."

"얼음 조각을 복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직원들. 정복을 입은 남성들과 여성드의 요구에 이현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수락했다. 남들이 일으킨 사고의 책임을 왜 그가 져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지금은 여동생이 보고 있었다. 최소한 여동생의 앞에서 몰인정한 인간이 되고 싶진 않았다.

강회장 내외는 정확히 30분 후에 도착했다. 비서와 수행원들과 함께였다. 완고한 고집이 느껴지는 노인인 강회장과 그의 부인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왔다. 예약해 놓은 음식들이 깜끔하게 세팅되어 있고, 지배인들은 미소 띤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자리에는 100개가 넘는 촛불들이 켜져 있었다.

"고맙네. 허허. 그보다도 주문한 것은?"

"예. 곧 도착할 것입니다."

강회장은 오늘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았다. 그의 부인이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함께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오늘은 이 모든 일들을 기념하는 자리다. 강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어서 준비해 주게. 지금 식사를 하면서 아내를 놀래 주고 싶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인은 등 뒤로는 식음땀을 흘리면서도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종업원들이 하나씩 음식을 내오고 밴드가 밝고 경쾌한 음악을 연주한다. 식사가 시작될 무렵, 강회장은 은근슬쩍 웃으며 그의 부인에게 물었다.

"즐겁지 않소?"

"네, 즐거워요. 아주 분위기가 좋은 레스토랑이네요."

아내의 대답에 강회장은 쑥스러운 듯이 머리를 긁적였다. 아무리 대기업을 거느린 오너라고 해도, 아내 앞에서는 청년 시절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는 40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낸 것이야말로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었다. 강회장의 부인의 얼굴이 은은한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주름살로 가득한 얼굴인데도 웃음기가 떠올랐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이런 곳을 와 보니 어색하기만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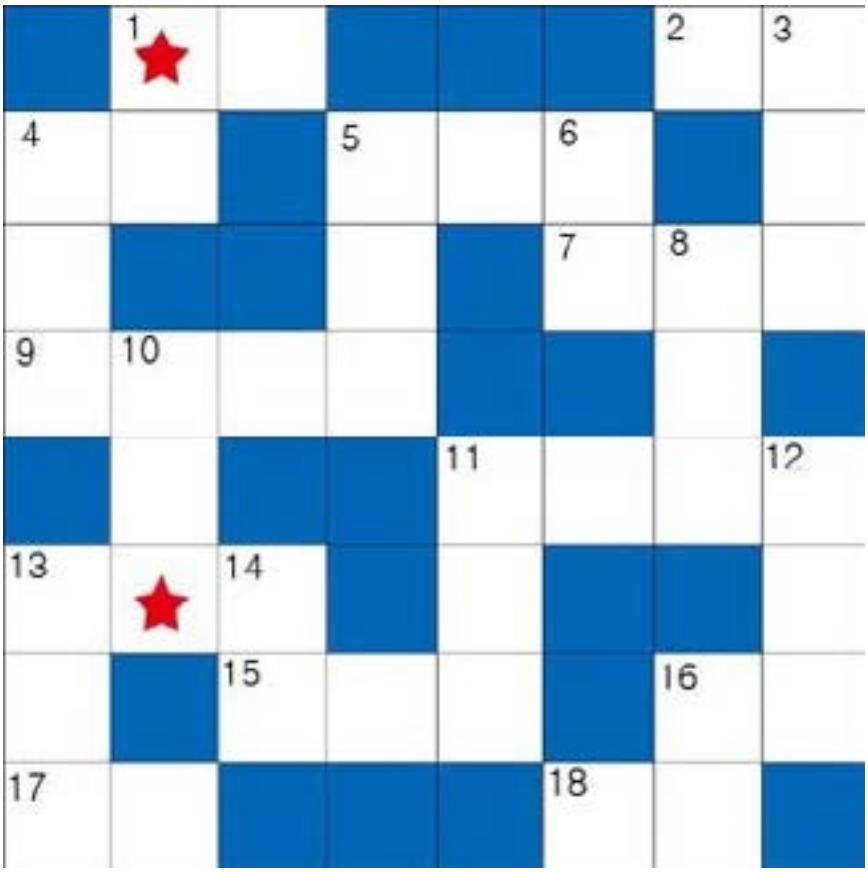
"당신은 여전히 젊어. 앞으로 자주 오도록 하자고."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준비한 이벤트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지? 아내를 깜짝 놀라게 만들어 주고 싶었는데.....'

강회장은 비서에게 힐끗 눈치를 주었다. 이미 그에게 식사 시간 전에 조각상을 테이블 앞에 놔두라고 지시했었다. 젊은 시절 아내의 모습을 앞에 두고 식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낱 말 퀴 즈



지난 답



* 가로열쇠

1.봄, 여름. ○○, 겨울
2.누울 때에 머리를 괴는 물건
4.성문의 바깥문 위에 지은 다락집
5.멥쌀가루를 켜가 없게 안쳐서 쪄 낸 시루떡
7.하룻낮의 반
9.인생과 영화의 덧없음을 이르는 말
11.방 짝, 방 친구
13.물건을 몰아서 사들임
15.물을 가열하여 온수를 발생시키는 장치
16.비어 있는 땅
17.움직여 옮김
18.바치는 물건을 물리치는 일

* 세로열쇠

1.잘게 부수거나 갈아서 만든 것
3.단군이 나라를 세운 날
4.어떤 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
5.대낮에 꿈을 꾼다. 헛된 공상
6.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기
8.집을 떠나 가까운 곳에 잠시 다녀오는 일
10.열을 차단할 목적으로 쓰는 재료
11.차량 안쪽에 위치한 거울
12.단문으로 소통하는 사이트
13.한창 혈기가 왕성할 때의 남자
14.바둑을 둔 내용의 기록
16.거저 얻은 물건

그런데 아직도 조각상은 앞에 없었다.

'뭘 하느라 늦어지고 있는 거야?'

점점 시간이 지났다. 간단한 수프를 비롯한 전채 요리가 끝나고, 본격적인 음식 들이 나온다. 그때에야 얼음이 나왔다.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큰 얼음 덩어리! 전혀 조각도어 있지 않은 사각형의 얼음 그 자체였다. 종업원들은 강회장 내외가 식사를 하는 테이블 바로 앞에까지 얼음을 운반해 왔다.

'뭐야, 이건.'

강회장의 얼굴이 불쾌하게 찌푸려졌다. 그가 주문했던 것은 세계에서 이름난 조각사의 작품이었다. 무언가 일이 잘못된 것을 느낀 것이다.

'무슨 사고가 벌어지지 않고서야.'

테이블 아래에 있는 양탄자에 시선이 미쳤다. 제법 치운다고 치운 모양이지만, 흥건하게 젖어 있는 양탄자.

'설마... 얼음이 깨졌다?'

강회장은 화를 내며 일어나려고 했다. 그때 이현이 나타 났다. 그는 망치와 정을 비롯한 조각 도구를 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얼음 조각상을 복구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미 충격이 전체로 퍼져서 균열이 가 있는 상태였다. 조각상을 다시 똑바로 세울 수조차 없었다. 목이 떨어지고 얼굴도 파손이 심해서, 복구를 한다고 해도 도저히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없었다. 결국 레스토랑에서는 30분간 얼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고, 이것을 구해 왔다. 전혀 조각되어 있지 않은 통짜 얼음이었다.

이현은 조각 도구를 들고 얼음 앞에 었다. 차가운 얼음 덩어리는 한기를 내뿜고 있었다. 조각사에게 재료는 무엇보다 소중한 작품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현은 장갑을 끼지 않은 손으로 얼음을 어루만졌다. 차가움이 전해진다. 도도하고, 깨지지 않은 거친 덩어리!

'별로 다르지 않아.'

모라타 지방에서 만들었던 얼음의 성질과 그다지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다.'

현실에서 조각상을 만드는 건 처음이다. 긴장된 순간이었다. 일을 하지 않겠다면 모르지만, 시작한 이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깡! 깡! 깡!
이현은 정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얼음 덩어리를 깎아냈다. 과거 강회장 부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알지 못한다. 당시의 사진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잠깐 본 조각상의 미묘한 얼굴을 기억할 수도 없었다.

눈매나 코의 높이에 따라 전체적인 인상이 확 바뀌기도 하는게 여자의 얼굴이다. 그러니 대충 기억나는 대로 조각을 할 수는 없다 이현은 강회장 부인의 현재 모습을 조각하기 시작했다. 조각사는 대상에 대한 이해심을 가져야만 한다.

강회장 부인은 과연 주름진 얼굴을 창피해할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든 모습이, 어디 나서기에 부끄러울까.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을 영원토록 간직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슬플까. 이렇게 자신을 사랑해 주는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았다. 그런데 과거 처녀 적의 용모가 그리울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주름진 얼굴은 창피한 게 아니다. 40년간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보내는 믿음과 애정.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었다. 고난을 겪으면서 마음고생도 많았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을 키워 내고, 사업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억척스럽게 살아왔다.

고생도 했지만 보람도 있었으리라.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건 40년 전의 예뻤던 시절이 아니다.

지금 이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는 할머니의 조각을 조금씩 완성해 갔다. 이현의 섬세한 손길이 움직일 때마다 깎여 가는 얼음 조각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모았다. 레스토랑과 호텔의 직원들도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조각사라고 해서 급한 마음에 일단은 일을 맡겼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심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주변의 테이블에서는 이혜연과 함께 그녀의 친구들고 구경을 하고 있었다.

강회장은 처음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호텔 측의 미흡한 준비에 대해서 질타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현이 조각상을 즉석에서 깎기 시작하면서 잠시 참기로 했다. 화가 줄어든 게 아니었다. 그의 아내가 호기심 어린 눈길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가뜩이나 결혼 40주년 이벤트가 망가진 마당이니, 아내가 보고 싶어 한다면 그냥 놔두고 싶었다.

'어디 무슨 짓을 하나 보자. 그러나 형편없을 경우에는 각오해야 할 것이다.'

과테말라 한인 교회 연합

(가나다 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최정욱

예배 · 성령 · 선교 · 사랑

주일예배 : 오전 10시 30분(동시통역)
교회학교 : 오전 10시 (통합예배)
새벽기도회 : 오전 5시(화~금)
전교인토요기도회 : 오전 6시(1,3주 토요일)
금요중보기도회 : 오후 8시(2,4주 금요일)
주소: 18 Calle 5-92 Col.Mariscal Z.11
연락처: 3033-7551 / 카카오톡:oj200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과테말라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이정로

주일 1부예배 : 오전 9시
주일 2부예배 : 오전11시
금요 기도회 : (금) 오후 8시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
청소년부예배 : (토) 오후 2시
청년부 모임 : (주일) 오후 1시
새벽예배 : (월-금) 새벽 5시
주소: 17Ave 28-92 Zona 12
교회 : 2293-2100

해외한인장로회 과테말라 주님의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복음과 사랑으로 지경을 넓히는 교회 (대상4:10)



담임목사 양철호
☎ 3029-1722

- 주일예배: 오전 9시 30분
- 주일학교: 오전 11시 30분
- GUATEMALTECO 예배: 주일오후 2-5시
- 수요성경공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새벽 기도회(월-토): 오전 5시 30분
- 실시간 라이브 톡 방송설교
  ☞ 카카오톡 접속ID : open2u

주소: 44 Calle 3-42 Z.12 Monte Maria 1
E-MAIL: open21me@gmail.com

제 일 교 회



담임목사 이병성

주일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8시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
중고등부 예배: 토요일 오후 2시
청년부 모임: 주일(2, 4주) 오후 1시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시
전교인기도회: 셋째주 토요일 오후 7시
토요 공부방: 토요일 오전 9:30~12시
주소: 0 Ave 9-41 Z.9
교회 : 2362-8565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하비스트교회

"하나님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

-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주일학교 : 오후 1시
- 수요신앙강좌 : 수요일 저녁 8시 (온라인)
- 새벽기도회 : 월~금 5시 30분

담임목사 : 서동오, 연락처 : 4067-1051, 2292-3662
주소 : 4 ave 'a' 14-76 Zona 14 (웨이즈 : 하비스트교회)

GUATEMALA CITY 평강교회 IGLESIA de LA PAZ

www.gupc.org



- 주일, 오전 8시(1부), 오전 11시(2부)
- 주일, 어린이 예배 - 오전 11시
- 수요, 저녁예배 - 오후 8시
- 금요(1,3주) 기도와 찬양 - 오후 8시
- 토요, 새벽기도회 - 오전 5:30

11Ave. 29-46 Zona12. El Bosque
USAC 입구 ☎ 2476-5772, 4677-4399

(최유찬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과테말라한인교회



담임목사 김디모데

2025년 표어 :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교회"
주일 1부 : 오전 9시 / 주일 2부 : 오전 11시
요셉학교(13~18세) : 오전 10시 30분
야곱(9~12세)/다니엘(5~8세) : 오전 11시
꿈의(2~4세)/씨앗(0~24개월) : 오전 11시
금요기도회 : 저녁 8시(2~5주)
토요월삭기도회 : 매월 첫째주 토요일 새벽 6시
새벽기도회 : 새벽 5시(월~금)
37Ave 3-36 Colonia El Rodeo Zona 7
교회 : 2433-4533, 2432-1449




잠이 늘고
의욕이 넘친다.
빨리 해, 빨리
네 네.
열네살 강아지에게 보양식이나 영양제보다 토끼 구경이 나은것 같다.
운
펄 펄
기
시들한 우리 개가 —
쉬랑 응가는 해야지, 이동아.
귀찮아
이건 모두
요새는
느닷없이 집 앞에 나타난 토끼 때문인데
용왕이 편찮으시니 토끼를 대령하라!
토끼를 잡 아니아니 구경하고 싶어서 냇길은 요새 산책이 즐겁다.
저깄다!
역시 토끼가 명약…
(아님)

읽는 방향

C SITE Texpia, S.A. 채 용 안 내

1. 모집 분야 및 지원 자격

구 분	모집부문	직 급	자격요건
경 력	영 업	선임(주임,대리)	동종 업계 경력 (3년이상) 스페인어 필수 및 영어 능통자 과테말라 거주자 및 해외 출장 가능한 자

2. 전형 방법 및 제출서류

- 1차 서류 전형
- 면접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요망 (사진포함)
  - ▶ 제출된 서류에 기재 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됩니다.

3. 지원 방법 및 문의처

- 이메일(email) 접수 : estelacho@c-site.co.kr
- 전화문의 : 3107-6861

DASAN 디엠씨 [구인·경력직]

- 회사명 : (주)디엠씨 / 다산그룹 계열사
- 기업규모 : 중견기업 / 업종 : 자동차 부품 제조업(고무 제품)
- 홈페이지 : http://www.dmc-motors.com
- 연락처 : doum@menschconsulting.co.kr. +82-10-3049-3251. (박 병 규)

[근무예정지] - 멕시코 케레타로

[포 지 션] - 멕시코 해외법인 주재원(재무회계)
- 대리 ~ 과장급(경력에 따른 협의)
- 정규직 (필수요건 : 스페인어 가능자)

[담당업무] - 멕시코 법인, 재무 회계 업무 - 전반적인 인사 업무
- 멕시코 법인 관리 업무 - 통역 업무
- 법인장 업무 서포트

[우대조건] - 경영학 또는 회계학 전공자 우대
- 해외 근무 경력 보유자 우대
- 자동차부품 제조업 경력자(3년 이상) 우대

[희망연봉] 현재 연봉 대비하여 협의 예정(후보자 의견 반영 협의)
* 현재(최종)연봉, 희망연봉 이력서에 기재 요망
* 경력을 감안한 면접 후 별도 협의(주재 수당 포함 협의)

[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화상 또는 대면) - 채용심사 - 합격통보
* 필요시 2차면접과 인적성검사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면접시 별도 협의



KOH
Clinica Dental

치주 질환 치료
신경 치료 · 치아 발치
교정 · 보철 · 미백

2485-6718
2485-6719
3148-1105
Calzado Roosevelt 35-98 Zona 7
Hospital de Día Itzamná Clinica # 5

이가 흔들리고 입에서 냄새가 나시나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치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담과 스케일링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고 반짝이는 미소를 되찾고
미래의 건강을 해칠수 있는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도와드립니다. 지금 예약 하세요! !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달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께!!
이 광고를 제시하시면
스케일링 서비스
15%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2025년 4월 24일 [3.27] 목요일

오늘의 운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열심히 살 때 발전과 성공이 있다. 72년생 공동투자 사업은 불길하니 한달을 기다리며 다시 결정할 것. 60년생 이사하거나 일에 대한 변화 및 변동을 하지 말고 현상태를 유지하라.



좋은 생각만 하여라. 어차피 삶은 굴곡의 연속선이다. 마음이 중요. 73년생 가정을 돌보아야 할 때이다. 부모님 보살핌이 최우선. 61년생 문서상의일을 신중히 하라.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잘되고 못되고는 자신에게 달려 있다. 지금 노력한다면 미래는 보장된다. 74년생 재산증식이나 부모님과 합쳐서 살게 된다. 매사에 감사한 마음 필요. 6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다만 조급함은 금물이다. 50년생 작은 금전적 이득이 있겠다. 작은 일도 신중하게 차근차근 진행하라.



너무나 좋은 운세이니 속으로 웃을 것. 질투받을까 걱정이다. 75년생 여성에게 구직을 부탁해 보라. 의외의 기쁨이 있을 수. 63년생 값은 좀 비싼듯해도 좋은 물건을 택하라. 그것이 남는 것. 51년생 조명을 밝게 하여 눈의 피로를 없애는 게 좋다. 시력 약화가 걱정된다.



실력이 없으면 짤리게 되는 운세. 허세만 부리며 목에 힘주고 있다. 싱글은 이성과 서로 통하지 않는데도 계속 만나다가 지쳐서 회의를 느낀다. 64년생 부정을 억압한다고 하면서 사리를 취하려는 사람을 경계하라. 52년생 참으면서 야망을 버려야 할 때. 자신의 위치에서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윗사람의 신용을 얻는 것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이다. 77년생 손수 만든 정성이 깃든 선물을 생각해 보라. 성공할 것이다. 65년생 성심을다해 일하니 모두가 공로를 인정해주나 보수는 적다. 53년생 승산이 있는 싸움이다. 조금만 더 젖먹던 힘을 내라.



불쾌한 하루가 예상된다. 가능한 행동을 자제하고, 나서지 마라. 78년생 나른한 오후. 시계만 자꾸 쳐다본다. 실수 연발. 66년생 회사에서 욕먹고 집에서 화풀이. 아내의 사랑이 최고의 명약이다. 54년생 너무 소심하고 사람을 믿지 못해 궁지에 몰린다. ㅂ,ㅎ 성을 조심하라.



친구와 의기투합해 일을 벌이나 이권 때문에 서로 손해보고 헤어진다. 싱글은 청춘사업이 나날이 발전. 인기좋아 몸이 열개라도 모자람. 67년생 사업 동지를 만난다. 결과가 좋지 않아 서로 원수가 될 수 있음. 55년생 오랫동안 끌어온 송사가 결말이 나지 않아 괴롭다. 화분을 사서 키워보라.



수험생은 공부 안한 것을 후회하나 이미 늦었다. 명예 실추. 80년생 일터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 자신의 능력을 불신받게 된다. 68년생 서로 헐뜯던 상대방과 화해를 한다. 새로운 일에 착수할 시기이다. 56년생 사막을 통과하던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발견한다. 오랜 어려움이 풀린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 크게 성공. 싱글은 여행 중에 이상형의 이성을 만난다. 69년생 이성으로 인한 구설과 금전적인 손해를 보니조심. 57년생 사업이 저조하여 자포자기에 빠질 수 있다.외국에서 구원자가 오니 최선을 다하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신중해야 한다. 싱글은 돈 문제로 애인과 다투기 쉬우니 조심하라. 학생은 외국으로 유학가는 일이 결정된다. 58년생 겉으로는 신의가 있어 보이지만 마음은 서로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큰 일 하기가 어려우니 건강 관리를 신중히 하라. 71년생 사업의 어려움이 해결되니 적극적으로 나가라. 성공하리라. 59년생 사업이 저조하고 지체된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니 주의하라.

난이도 : 쉬운 단계

		9			8	5		
	1		4		9		8	3
4		7	2				6	
9			8					6
1		3	7		4	8		9
7			9					5
	9				1	7		2
3	4		5		7		1	
		1	6			3		

난이도 : 어려운 단계

5					3			2
6			5			8		
			1					6
4				2	1	9		
		3			4	5		
		7	6					4
9					8			
		6			5			3
1			2					7

오늘의 스도쿠 정답

쉬운단계정답

4	9	3	2	8	6	1	7	5
8	1	6	7	9	5	2	4	3
2	5	7	1	4	3	6	9	8
5	3	4	6	1	9	8	2	7
9	2	8	5	7	4	3	6	1
6	7	1	3	2	8	4	5	9
1	6	9	8	5	2	7	3	4
3	8	2	4	6	7	5	1	9
7	4	5	9	3	1	6	8	2

어려운단계정답

7	6	4	9	3	2	8	5	1
3	8	2	5	1	9	6	4	7
5	1	9	8	7	4	2	3	6
4	2	3	9	5	6	7	1	8
1	9	5	6	4	7	3	8	2
8	7	6	3	2	1	9	5	4
9	3	7	2	8	5	4	6	1
6	5	8	4	9	3	1	2	7
2	4	1	7	6	8	5	9	3

유머

카페에서 방금 개웃긴 일 있었음.

남자 손님 두 분이 스무디 시키더니 진짜 5분도 안되서 먹고 일어남.

남자들 빨리 먹는 건 하루 이틀 아니여서 그러려나 싶었는데 컵 가져다놓는 거 본 알바가 당황해서

음료 잘못 드렸다고 새로 만들어드린대 ㅋㅋㅋㅋ

남자 두분 다시 앉아서 10분 만에 먹고 나감 ㅋㅋ

남자들 자기가 뭐 시켰는지도 모르고 먹어? ㅋㅋ

남편의 해결책

엄마가 고등학생 아들 의 방을 청소하다가 ‘사디스트와 마조히스트’란 잡지를 발견했다.(포르노 잡지)

엄마는 너무 놀랐는데 저녁이 되어 돌아온 남편에게 잡지를 보여 주었다. 남편은 잡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아내에게 돌려주었다.

여자가 남편에게 말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자 남편이 먼 산을 바라보다 말했다.

“때려서 혼내는 건 소용없을 것 같은데?”

빗나간 화살



천석꾼 부자 고첨지는 성질이 포악하고 재물엔 인색한 수전노라 고을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해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민원이 수없이 관가에 올라갔지만 그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더했다. 고첨지는 산삼이다, 우황이다, 온갖 진귀한 것들을 구해다 사또에게 바쳐서 사또를 한통속으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고첨지네 말 한마리가 없어져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집사와 하인들이 온 고을을 뒤지며 수소문 끝에 용천다리 아래 거지떼들이 간밤에 잡아먹어 버렸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날 밤, 뚜껑이 열린 고첨지가 손수 횃불을 들고 용천다리 아래로 가서 거지들의 움막집에 불을 질렀다. 불길은 하늘로 치솟고 뛰쳐나오는 거지들을 고첨지네 하인들은 몽둥이찜질을 했다. 집으로 돌아와 아직도 화가 덜 풀려 약주를 마시고 있는 고첨지 앞에 안방마님이 들어와 앉아 "저는 한평생 영감이 하는 일에 한마디도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영감이 몇번이나 첩살림을 차릴 때도!"

"어흠, 어흠."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고첨지가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번엔 제 말 한마디만 들어주십시오."

"뭣이오?" "그들이 오죽 배가 고팠으면 말을 잡아먹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엄동설한 밤중에 그들의 움막집을 태우면 그들은 모두 얼어 죽습니다. 제 소원 한번만 들어주십시오."

천하의 인간 망종 고첨지도 가슴속에 한가닥 양심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움막집을 날려버리고 강둑에서 모닥불가에 모여 달달 떨고 있는 거지들을 집으로 데려오게 했다. 여자와 아이들은 찬모 방에 들여보내고 남정네 거지들은 행랑에 넣었다. 고첨지가 행랑 문을 열어젖히고 들어가자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히 앉은 거지들이 또 무슨 낭패를 당할까 모두 고개를 처박는데 "말고기 먹고 술 안 마시면 체하는 법이여." 거지들이 어리둥절 머리를 들자 술과 안주가 들어왔다.

아녀자들이 모여 있는 찬모 방엔 밥과 고깃국이 들어갔다. 그날 밤 고첨지는 거지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자신도 몇잔 받아 마시며 거지가 된 사연들을 물어봤더니 코끝이 시큰해졌다. "우리 집에 방이 많이 있으니 겨울을 여기서 나거라. 봄이 오면 양지바른 곳에 집들을 지어줄 터이니." 행랑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소식을 전해들은 찬모 방에서도 감격의 울음이 터져나왔다. 안방에서는 마님의 울음이 터졌다. "영감, 정말 대인이십니다!"

눈이 펄펄 오던 날 마실 가던 고첨지가 노스님을 만났다. 노스님이 눈을 크게 뜨고 고첨지를 자세히 보더니 "관상이 변했소이다. 화살이 날아와 아슬아슬하게 목을 스치고 지나가리다." 고첨지는 빙긋이 웃으며 "안 죽겠네."

어느 날 밤, 고첨지네 행랑에서 떠들썩하게 거지들이 새끼 꼬고 짚신 만들고 가마니를 짜는데 행색이 초라한 선비 하나가 들어오더니 "고첨지라는 못돼 먹은 인간이 온갖 악행을 다한다는데 여기는 당한 사람이 없소이까?"

이튿날 새벽, 사또가 헐레벌떡 고첨지를 찾아왔다. "고첨지 큰일 났소. 어젯밤 암행어사가 당신 집 행랑방에서 거지떼들에게 몰매를 맞고 주막에 누워 있소. 의원이 그러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은 모양이오. 의원이 진맥을 하다가 마패를 보고 내게 알려준 거요."

얼마 후 고첨지는 임금이 하사한 큰 상을 받았다. "부인, 이 상은 부인의 것이오. 소인의 절을 받으시오."

로데오 MART 한국식품전문 2433 통합배달전문 9015



3월3일 신상품 대량입하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한국장판 / 부탄가스

입고되었습니다

